

2018학년도 대수능 대비

다독다감

2월호

산문문학 추가자료

새로배움X천하포문 국어교육 연구소

목차

PART 1. 2월호 추가자료

PART 2. 미처 실지 못한 이야기들 - 사관학교와 경찰대 입학시험 문제

PART 1

2월호 추가자료
(해설과 추가문제)

<이문구, 유자소전 지문 추가해설>

★ 이문구 유자소전 줄거리

유재필이라는 친구는 심성이 깔끔하고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며 능력도 작지 아니하여 작가인 '나'에게 많은 것을 도와 준 사람이다. 그는 남에게 기대거나 남 앞에 나서기를 꺼리며, 분수없이 남을 제끼거나 잘났다고 으스대는 자를 매우 싫어하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사는 방식은 우리가 사는 요즈음 세상과는 잘 맞지 않아서 돌출된 행동을 많이 하고 세상살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는 남들을 위해 일하고 또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려 한다.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려 애쓰다가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망가진 몸으로도 굶은 일을 도맡아 하다가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만다. 요령과 불의와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자기가 지닌 가치관에 따라 당당하게 살다간 유자야말로 이 시대가 기려야 할 인물이기엔 '전'을 써서 기리는 것이다.

★ 지문 해설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 놓았다.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 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즐기지를 못했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 때문이었다.

“대관절 월매짜리 고기간디그러?” /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팔십만 원씩 주구 가져왔다.”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나의 월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 볼까 말까 한 값이었다.

“웬 늙은 잉어가 사람버덤 비싸다나?”

내가 기가 막혀 두런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면그러. 뱀어낸벤또(베토벤)라나 뱀라나를 틀어 주면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차에코풀구십어(차이콥스키)라나 뱀라나를 틀어 주면 또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좌우간 곡을 틀어 주는 대루 못 추는 춤이 읊는 순전 탄따라 고기닝께. 물고기두 꼬랑지 흔들어서 먹구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그 집에서 춤 봤구먼.”

→ 총수의 집에 매우 비싼 비단잉어들을 들여놓는다.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혈계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켜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닢 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가 하고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은 말이었다.

“글쎄유, 아마 밤새에 고뿔이 들었던 개비네유.”

유자는 부러 탄청을 하였다.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두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라니께 여러 가지루다 객고가 썩어서 조시두 안 좋았을 테구…… 그런디다가 부릇쓰구 지루박이구 가락을 트는 대루 디립다 취뎀으니까 과로해서 몸살끼두 다소 있었을 테구……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덜일수록이 다다 탈이 많은 법이니께…….”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부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잖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 시멘트 독에 의해 죽은 비단잉어들을 고뿔로 죽었다고 의문스럽게

넘어가는 유자와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총수 [중간 부분의 줄거리] 불상을 닦는 일로 총수의 미움을 사게 된 유자는 총수의 개인 운전수 자리에서 쫓겨나 회사에 속한 차량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췌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듬이 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이 셋방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홀어미와 단칸 셋방에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 버려 어린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 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두 포대 팔아 주고, 그리고 연탄을 백 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여탈* 수 있는 한계였다.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 가게에서 연탄 백 장을 지게로 저 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 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 드는 것은 만날 열간하여 엮어 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드티었던* 것이다.

도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름을 개 안 달게 고양이 안 달게 야무지게 매달아 주면서,

“뽕(부엌)에 제우(겨우) 지랑(간장)뽕이 읊으니 뽕이구 수제비구 건건이가 있으야 넘어가지유. 탄불에 귀 자시든 뽕솔에 썩 자시든 하면, 생긴 건 오죽잖어두 뇌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볼 만할류.”

쌀이나 연탄을 들여 줄 때는 회사에서 으레 그렇게 돌봐 주는 것이거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 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사원으로 좌천된 후 선행을 계속하는 유자

〈유자소전 추가 문제〉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34-37

[추가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국순(麴醇)의 자(字)는 자후(子厚)이다. 그 조상은 농서(隴西) 출신이다. 90대(代) 선조였던 모(牟)가 후직(后稷)을 도와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다. 『시경』에 ‘내게 밀과 보리를 주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모(牟)가 처음에는 숨어 벼슬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받을 갈아 먹으리라.” 하며 밭이랑에서 살았다. 임금이 그의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레를 보내 부르며 각 고을에 명하여 후한 예물을 보내라 하고, 신하를 시켜 친히 그 집에 찾아가도록 해 결국 절구와 절굿공이 사이에서 귀천 없는 교분을 맺고, 자신을 덮어 감추고 세상과 더불어 화합하게 되었다.

〈중략〉

[B] 순은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다. ①출령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萬頃蒼波) 같으며, 맑게 하려 해도 더는 맑아질 수 없고 뒤흔든대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런 풍류 취향이 한 시대를 풍미하여 자못 사람의 기운을 일으켜 주었다.

일찍이 섭법사(葉法師)에게 나아가 온종일 담론하였는데,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탄복하여 쓰러지자, 드디어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호를 ‘국(麴) 처사’라 하며 공경 대부로부터 머슴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접하는 이마다 모두 그를 흠모하였으며,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순이 오지 아니하면 모두 슬퍼하여 말하기를,

“국 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했다. 그가 당시 세상에서 사랑받음이 이와 같았다.

산도(山濤)라는 이는 감식안이 있었는데, 일찍이 순을 보고는 감탄하여 말했다.

④“어떤 늙은 할미가 이토록 잘난 기린아를 낳았을꼬? 하지만 천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도 필경 이 아이일 것이다.”

관부(官府)에서 순을 불러 청주종사(靑州從事)*를 삼았으나, 마땅한 벼슬자리가 아니라 하여 다시 평원독우(平原督郵)*를 시켰다. 얼마 후 탄식하기를,

⑤“내가 이 얼마 되지 않는 녹봉을 받고, 이 따위 시골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 내 마땅히 술잔과 술상 사이에 곧추 서서 담론하리라.”

그 무렵 관상을 잘 보는 이가 있어 말했다.

“그대의 얼굴엔 불그레한 기운이 감돌고 있소.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니, 마땅히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벼슬에 나아가시오.”

[C] 진 후주(陳後主) 때에 임금이 그의 그릇을 남다르게 여겨 장차 크게 쓸 뜻이 있다 하여 광록대부 예빈경의 자리로 옮겨 주었고, 공(公)의 작위에 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무릇 군신의 회의에는 임금이 꼭 순으로 참여케 하니, 그 나아가고 물러남과 그 수작이 거슬림이 없이 뜻에 들어맞았다.

⑥순이 권세를 얻게 되자, 어진 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며,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등의 일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 임금이 밤에 잔치를 열 때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곁에서 모실 수 있었을 뿐, 아무리 임금과 가까운 신하여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후로 임금은 곤드레만드레 취하여 정사를 폐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은 ⑦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앞에서 간언할 줄 몰랐다. 그리하여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은 그를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금은 매양 그를 감싸고돌았다.

순은 또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그를 천하게 여겼다. 임금이 묻기를,

“경은 무슨 버릇이 있소?” / 하니, 순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나이다.”

[C] 했다. 임금이 크게 웃고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번은 조정에 들어가 임금 앞에 마주 대하고 아뢰었는데, 순이 본디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고, 이에 임금이 싫어하며 말했다.

“경이 나이 들고 기운도 없어 나의 부림을 못 견디는구료!”

그러자 순은 마침내 관을 벗고 물러나면서 아뢰었다.

⑧“신(臣)이 높은 벼슬을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망신이 될까 두렵습니다. 부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왕의 명으로 좌우의 부축을 받아 집에 돌아온 순은 갑자기 병이 나 하룻밤 사이에 죽고 말았다.

[D] 자식은 없고 먼 친척 가운데 아우뻘 되는 청(淸)이, 훗날 당 나라에 출사(出仕)*하여 벼슬이 내공봉에 이르렀으며, 그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하였다.

사신(史臣)은 이렇게 말했다.

“국 씨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로가 있고, 청백한 기상을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울창주(鬱.酒)는 주나라에서 칭송이 하늘에 닿을 듯했으니, 가히 그 조상의 기풍이 있다 하겠다.

[E] 순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 높은 벼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어 술 단지와 술상 사이에 서서 담론하게 되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왕실이 어지러워져도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산도(山濤)의 말을 족히 믿을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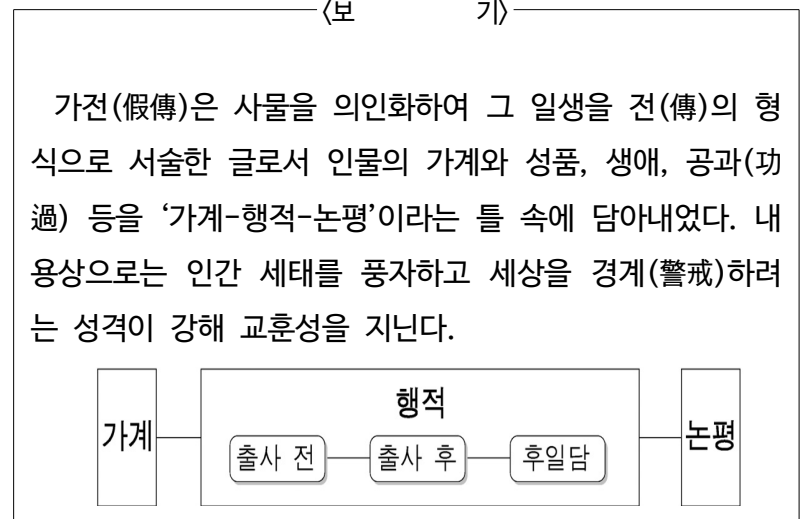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사건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권위 있는 인물의 중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국순의 성품을 바다에 비유한 것으로, 넓고 깊은 국순의 마음을 의미한다.
- ② ㉡은 국순의 장래를 예언한 것으로, 국순이 세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경고한다.
- ③ ㉢은 불만족스러운 처지와 이를 넘어서려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국순의 자존심을 나타낸다.
- ④ ㉣은 국순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맡았던 소임을 기술했으므로, 친교 모임이나 공식적 행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국순의 면모를 부각한다.
- ⑤ ㉣은 퇴임하면서 국순이 한 말로, 선조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순수했던 성품을 되찾고자 스스로 물러난 국순의 의지를 드러낸다.

3. <보기>를 참고하여 [A] ~ [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가문 내력을 소개하는 가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주인공이 유서 깊은 가문 출신임을 알려 주고 있군.
- ② [B]와 [C]는 주인공의 행적을 구분하여 [B]에서는 주로 주인공의 과오를, [C]에서는 주로 훌륭한 업적을 기술했고 있군.
- ③ [C]에서 형상화된 주인공의 행적으로부터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E]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D]는 후대의 가문 내력을 기술했어 국순 가문이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갔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E]는 사신(史臣)이 논평하는 객관적 형식을 활용하여 인간 세태에 대한 작가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군.

4. ㉣을 나타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함구무언(緘口無言) ② 중언부언(重言復言)
-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④ 이실직고(以實直告)
- ⑤ 어불성설(語不成說)

<이청준, 가면의 꿈 추가 지문해설>

★ 이청준, 가면의 꿈 줄거리

어려서부터 천재로 주목받던 '명식'은 촉망받는 젊은 법관이 되었고, 아내 '지연'과의 결혼 생활도 행복한 편이다. 그런 그에게 밤마다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한 채로 돌아다니는 이상한 버릇이 생긴다. 가면을 써야 위안을 느끼는 그의 밤 외출은 갈수록 잦아진다. 그런 명식을 아내 지연은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명식의 맨 얼굴에서 가면을 느끼고, 가면을 쓴 모습에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러나 명식은 예전처럼 가면을 통해 휴식을 느끼지 못하고 피로감만 쌓이기 시작한다. 명식의 피곤기와 황량함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결국 가면을 쓴 채 투신하고 만다.

★ 지문 해설

명식의 밤 외출은 날이 갈수록 잦아 갔다. 2층 서재로 숨어 들어가 그의 가면 뒤에서 이상스런 휴식에 젖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하여 그는 사무실에서 물어 온 피곤기를 가면 뒤에서 말끔히 씻어낸 다음 지연을 찾아 밤늦은 2층 계단을 내려오곤 했다. 명식은 분명 그 가면 뒤에서라야 비로소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듯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변신의 연극기 같은 것에서 오는, 그 가면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새삼스럽게 자기를 느끼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어쨌든, 이제 지연이 명식을 속속들이 다 만나는 것은 그가 그 밤 외출에서 이상스런 방법으로 피로를 씻고 새 힘을 얻어 돌아오는 날뿐이었다.

→ 명식은 가면을 쓴 밤 외출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다.

이윽고 지연에게도 한 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명식을 만나고 싶은 밤의 소망은 반드시 그의 가면을 연상시켜 주곤 했다. 지연은 명식의 가면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명식의 가면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명식의 가면이 어느새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어쩌면 썸인지그녀는 명식의 동기까지를 포함하여 그러한 자신을 스스로 수긍해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명식에게서도 혹시 그런 기미가 엿보이고 있었기 때문일까. 지연은 이제 오히려 명식의 맨얼굴 쪽에서 어떤 불편스런 가면이 느껴지고 있을 지경이었다. 그녀에게는 명식이 맨얼굴로 대문을 들어설 때의 표정 이야말로 영락없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뻣뻣하고 변화 없고 그리고 어떤 뻘뻘스런 피곤기 같은 것이 온통 그를 가려 버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러나 지연은 그토록 익숙해진 명식의 가면을 아직도 똑똑히 본 일이 없었다.

그 첫날 한 번밖엔 명식이 자기의 가면 뒤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을, 그것이 진짜 자기의 얼굴이나 되는 양 익숙해져 버린 가면으로 의기양양 밤 외출에서 돌아오곤 한 명식을 다시 본 일이 없었다.

지연은 보지 않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그 명식의 얼굴을 자신 속에다 깊이 지녀 버리고 있었다. 문득문득 그것을 만나고 싶은 밤이 많았다. 이날도 지연은 그런 명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 지연은 가면 쓴 명식의 얼굴이 더 낯 익어간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잠시 후 명식이 밤 외출에서 돌아온다.

한참을 기다렸다. 역시 기척이 없다. 이상한 일이었다.

오늘 밤에도 또?

지연은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문득 어떤 별난 밤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도 명식은 썸 오랜만의 밤 외출에서 돌아와 소리 없이 2층으로 올라간 다음이었다. 지연은 물론 그녀의 침대 속에서 명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계단을 내려오는 기척이 없었다. 지연은 불쑥 상서롭지 못한 예감이 들었다. 술이 너무 지나쳤나 싶기도 했고, 그런 일이 워낙 처음이라 다른 심상찮은 번고가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했다. 그녀는 기다리다 못해 결국 자기가 먼저 침대를 내려오고 말았다. 여자가 먼저 남편을 찾는 것처럼 보이기가 여간 썸스럽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녀는 명식을 살피고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루에서 잠깐 발길을 망설이던 그녀는 가만가만 2층 계단을 올라 갔다.

→ 밤 외출에서 돌아온 명식과 그를 기다리다 지친 지연

지연이 명식의 방문 앞까지 다가갔을 때 방안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판판이었다.

“좀 들어오지그래.”

기다리고 있거나 했었던 듯 문을 열기도 전에 명식의 소리가먼저 흘러나왔다. 술이 취해 있기는커녕 너무도 정연하고 조용한목소리였다. 지연은 썸스러움도 잊고 끌리듯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명식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 근처의 어둠 속에 조용히 파묻혀 있었다.

“앉지 않구.”

어둠 속이라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왔다.

“오늘 밤은 여기서 좀 이렇게 지내다 가.”

어떤 분명한 의미가 담긴 말이었다. 지연은 감히 명식의 걸음으로 갈 수가 없었다. 공연히 그가 두려웠다. 변장을 하고 있을 그의 얼굴을 만나 버리기가 두려웠다. 그녀는 명식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등 없는 등글의자 위로 몸을 주저앉혔다. 그러나 지연은 그러고 앉아서도 명식의 어떤 분명한 얼굴을 보고 있었다.

명식은 아직 변장을 풀지 않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가 너무

잔잔했다. 어딘가 한숨 같은 것이 묻어 있는 잔잔한 음성이었다.

지연은 명식의 그 음성으로 그가 지금 자기는 보지도 않고 창 밖으로 시선을 내보낸 채, 그녀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깊은 갈망에 젖고 있다는 것을 어슴푸레 느낄 수 있었다.

- 이렇게 불을 끄고 앉아 있으니 밤이 좋군. 대낮은 얼굴이 너무 따가워서…… 누구나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 사람들이 얼굴 가득히 그 엄청난 대낮의 햇빛을 스스럼없이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잘 단련이 되고 있는 건 다행한 일이지.

- 하지만 그건 다행스럽다고만은 할 수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가면을 든든하게 단련시켜 가고 있거든.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

- 가면이 우는 걸 보았을까.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가면의 눈물은 속으로만 흐르게 마련이거든.

명식은 역시 취기가 좀 숨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퍽퍽씩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앞뒤가 닿는 소리만 추려 보면 대강 그런 식이었다. 지연이 보아 온 대로였다. 대낮을 다니는 맨얼굴에서 가면을 느끼는 대신, 가발과 콧수염으로 변장을 하고 있는 당장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기미였다. 그리고, 그래서 명식은 그러한 변장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고뇌를 가장 정직하게 안을 수 있는 듯한 태도였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앉아서 어둠에 싸인 명식의 희미한 모습만 더듬고 있었다. 그러다가 방을 나오고 말았다.

→ 방에서 변장을 풀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명식과 지연

<가면의 꿈 추가 문제>

2010년 10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13-16

[추가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명식은 중학교 때 전국 백일장에서 신동한 문체로 심사 위원들을 놀라게 했고, S대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 최연소로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지금은 판사를 하고 있다.

벽시계가 자정 5분 전을 가리키고 있다. 명식은 아직도 돌아오는 기척이 없다. 지연은 다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멍한 얼굴로 어둠 속을 응시하고 앉아 다시 바깥 기척을 지키기 시작한다.

..... 이웃에서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명식이 전혀 딴 얼굴 모습으로 대문을 나서는 걸 보았노라고도 했고, 어떤 날 모를 사내가 지연이네 대문 앞에서 머뭇머뭇 서성거리고 있는 걸 보았는데, 나중에는 그가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대문 안으로 사라져 들어가는 걸 보고 적잖이 수상쩍은 생각이 들었노라고도 했다. 명식이 변장을 하고 해괴한 바깥 나들이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지연은 차츰 명식의 거동에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과연 밤 외출이 늘고 있었다. 비로소 관심이 가기 시작한 일이었지만,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그의 얼굴은 딱할 정도로 피곤해져 있곤 했다. 대문을 들어서서는 그의 표정은 날개 꺾인 새처럼 늘 힘이 없었고 죄지는 아이처럼 의기소침해져 있었다. 말수도 훨씬 적어진 듯했고 영문 모를 신경질 같은 것이 돌아 있을 적도 있었다. 피곤한 귀가의 연속이었다.

그런데도 명식은 저녁이 끝나면 늘 밤 외출을 서둘렀다. 언제 어떻게 대문을 나간지도 모르게 혼자 살짝 집을 빠져나가곤 했다. 2층 서재쪽에서 피로를 풀고 있으려니 싶다 보면 어느새 정원의 외등이 꺼져 있곤 했다. ㉠ 밤 외출을 나갈 때는 반드시 외등을 끄고 나서 현관을 나서는 버릇 역시 짐작이 가는 데가 있는 일이었다.

그의 변장은 그런 밤 외출 때만도 아닌 듯했다. 외출이 없는 날도 그는 저녁을 끝내자마자 곧장 2층으로 올라가 혼자 서재 속에 깊이 파묻혀 버리기 일쑤였다. 혼자 좀 조용히 쉬고 싶다는 게 그때마다의 그의 핑계였다.

그러나 지연은 알고 있었다. 명식이 그렇게 서재 안에 파묻혀 있을 때에도 그가 가발을 쓰고 콧수염을 붙이고, 어쩌면 그의 얼굴을 가장 잘 감춰줄 수 있는 안경까지 걸쳤을 모습이 자주 상상되곤 했다. 그런 식으로 변장을 하고 그는 자기 가면 뒤에서 정말로 조용한 휴식을 얻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사실 지연이 명식의 변장한 얼굴을 본 것은 앞서 말한 대로 그의 기벽을 발견한 그 첫날 한 번뿐이었다. 그런데 그 첫 번이 중요했다. 지연은 그 첫 번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날의 명식은, 가면이 된 그 명식의 얼굴은 속속들이 스며든 피로를 한 오라기 한 오라기씩 조심스럽게 씻어 내면서 조용한 휴식에 젖어 있는 모습이 분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연은 시일이 지날수록 더욱더 피곤해져서 대문을 들어서서는 명식의 얼굴 모습과, 그 얼굴을 가면 뒤에 감춘 채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그날의 모습이 겹쳐 이상스러울 만큼 절실한 남편의 휴식과 위안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휴식과 위안이기도 했다.

명식의 변장에서 지연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깊은 동정과 스스로의 감동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지연은 명식을 방해하지 않았다. 해괴한 느낌은 어느새 말끔히 가서 나갔다. 오히려 그의 변장을 돕고 나섰다. 명식이 2층 서재로 들어박히는 것을 절대 아는 체하지 않았다. 밤 외출의 유혹을 느끼는 눈치가 보이면 외등을 끄고 자신이 침실로 숨어 들어가 버림으로써 은밀스럽게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러면 명식은 영락없이 혼자 대문을 빠져나갔고, 그 가면의 외출에서 그는 퇴근 때의 피곤기와 짜증스런 신경질을 말끔히 씻고 돌아왔다. 물론 지연은 밤 외출에서 돌아오는 명식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데도 배려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므로 대문을 들어서서는 그의 표정을 바로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런 날 밤이면 거의 빠짐없이 어둠 속으로 2층 나무 계단을 내려와 비로소 그녀를 발견한 듯한 것 다감해지고 한껏 활력에 찬 잠자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 저래 명식의 밤 외출은 날이 갈수록 잦아갔다. 2층 서재로 숨어 들어가 그의 가면 뒤에서 이상스런 휴식에 젖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하여 그는 사무실에서 물어온 피곤기를 가면 위에서 말끔히 씻어 낸 다음 지연을 찾아 밤늦은 2층 계단을 내려오곤 했다. 그는 분명 그 가면 뒤에서야 비로소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듯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변신의 연극기 같은 것에서 오는, 가면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어쨌든, 이제 지연이 명식을 속속들이 다 만나는 것은 그가 그 밤 외출에서 이상스런 방법으로 피로를 씻고 새힘을 얻어 돌아오는 날뿐이었다.

그리고 지연에게도 이윽고 한 가지 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명식을 만나고 싶은 밤의 소망은 반드시 그의 가면을 연상시켜 주곤 했다. 지연은 명식의 가면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명식의 가면을 만나고 싶어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명식의 가면이 어느새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그 명식의 동기까지를 포함하여 그러는 자신을 스스로 수궁해 가고 있었다. 명식에게도 혹시 그런 기미가 엿보였기 때문일까. 지연은 이제 오히려 명식의 맨 얼굴 쪽에서 어떤 불편스런 가면이 느껴지고 있을 지경이었다. 그녀에게는 명식이 맨 얼굴로 대문을 들어설 때의 표정이야말로 영락없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뻗뻗하고 변화 없고 그리고 모종 뻗뻗스런 피곤기 같은 것이 온통 그를 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러나 지연은 그토록 익숙해진 명식의 가면을 아직도 똑똑히 본 일이 없었다.

그 첫 날 한 번밖엔 명식이 자기 가면 뒤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을, 그것이 진짜 자신의 얼굴이나 되는 양 익숙해져 버린 가면으로 의기양양 밤 외출에서 돌아오곤 할 명식을 다시 본 일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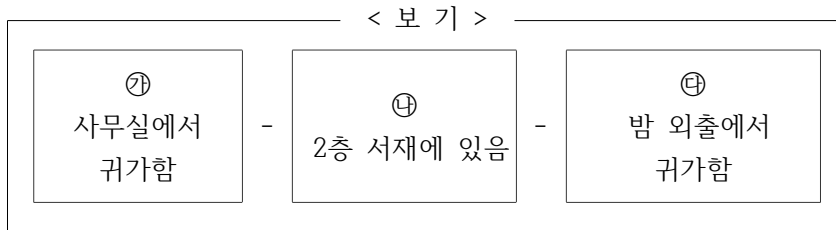
지연은 보지 않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그 명식의 얼굴을 자신 속에 깊이 지녀버리고 있었다. 문득문득 그것을 만나고 싶은 밤이 많았다. 이날도 지연은 그런 명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 이청준, 「가면의 꿈」 -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여 사건 흐름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들을 현실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시대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제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2. <보기>는 위 글을 '명식'의 행위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연은 점차 ㉠보다는 ㉢에서의 명식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다.
- ② 지연은 ㉡뿐만 아니라 ㉢일 때도 명식이 가면을 쓴다고 믿고 있다.
- ③ 지연은 명식에게 ㉠에서는 동정을, ㉡에서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 ④ 지연은 ㉢에서의 명식의 심리 상태가 ㉠에서보다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 ⑤ 지연은 ㉡에서의 명식의 행동이 ㉢에서의 피곤을 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3. ㉠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식은 현재의 삶에 대해 성찰을 하고 있다.
- ② 명식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 비관하고 있다.
- ③ 명식과 지연이 서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있다.
- ④ 명식이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
- ⑤ 명식은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명식'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 보 기 >

심리학자 융은 인간에게는 '페르소나(persona)'와 '그림자(shadow)'의 측면이 있다고 한다. 페르소나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면서 얻어진 자아의 한 측면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로지 페르소나만 추구하려 한다면 그림자가 위축되어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해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어지게 된다. 한편 그림자는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 성향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에서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충동적인 면이 있지만, 자발성, 창의성, 통찰력, 깊은 정서 등 긍정적인 면이 있어 지나치게 억압해서는 안 된다.

- ① 명식은 자신의 그림자 측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가면을 쓴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명식은 현재의 페르소나 측면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라고 믿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명식이 페르소나 측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연을 멀리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명식은 페르소나 측면이 그림자 측면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군.
- ⑤ 명식이 변장하는 행위는 그림자 측면을 보완하여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김만중, 구운몽 추가 지문 해설>

★ 구운몽(김만중)의 줄거리

육관대사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후 부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많은 제자가 모여 들었는데 그 중 성진이하는 제자가 특히 뛰어나 육관 대사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어느 날 성진이 육관 대사의 심부름으로 용궁에 다녀오고 용왕과 술을 마시고 8 명의 선녀와 말을 주고받았다. 이 일을 안 육관 대사는 성진과 8 선녀를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낸다. 성진은 인세에서 양소유로 환생하는데 아버지 없이 자랐으나, 특출난 재능으로 나라의 큰 공을 세우게 된다. 그 과정에서 관직과 재물을 거머쥐고 8 선녀중 2명을 정실 부인으로 6 명을 첩으로 삼게된다. 양소유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으나 관직에서 은퇴한 후 인간 상의 삶이 헛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때 육관 대사는 늙은 승려의 모습으로 나타나 양소유의 꿈을 깨운다. 꿈에서 깬 양소유는 자신이 성진이였음을 깨닫고 대사에게 다시 가르침을 줄 것을 부탁한다. 8 선녀도 꿈에서 깨어 육관 대사에게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한다. 육관 대사가 아들에게 큰 가르침을 베풀고 아홉 명의 제자는 깨달음을 얻어 극락으로 갔다.

★ 지문 해설

성진이 여덟 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자못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아가 세상에 나 어려서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 요순 같은 임금을 만나,
 나면 장수 되고 들면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띠고 옥결에 조회
 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恩澤)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이 후세에 드리움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 밥과 한 병 물과 두어 권 경문과 일백 여덟 날 염주뿐이라.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다.’
 생각을 이리하고 저리하여 밤이 이미 깊었더니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섰거늘
 놀라 고쳐 보니 이미 간 곳이 없더라. 성진이 마음에 누우쳐 생각하되,
 ‘부처 공부에서 특히 뜻을 바르게 함이 으뜸 행실이라. 내 출가한 지 십 년
 에 일찍 반점 어기고 구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더니, 이제 이렇듯이 염려를
 그릇하면 어찌 나의 전정(前程)에 해롭지 아니하리오?’
 향로에 불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고르
 며 일천 부처를 염하더니, 홀연 창 밖에 동자가 부르되,
 “사형은 잠들었느냐? 사부가 부르시나이다.”
 성진이 놀라 생각하되,
 ‘깊은 밤에 나를 부르니 반드시 연고가 있도다.’
 동자와 한가지로 방장에 나아가니 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으고 등축을 낮갈
 이 켜고 소리하여 꾸짖되,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성진이 섬뜩에 내려 꿇어 가로되,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십 년에 일찍 한 말도 불순히 한 적이 없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아지 못하나이다.”
 대사가 이르되,
 “중의 공부가 세 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말씀과 뜻이라. 네 용궁에 가 술
 을 취하고, 석교에서 여자를 만나 언어를 수작하고 꽃을 던져 희롱한 후에
 돌아와, 오히려 미색을 권련하여 세상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
 이 여기니, 이는 세 가지 행실을 일시에 무너뜨림이라.”
 성진이 고두(叩頭)하고 울며 가로되,
 “스승님아, 성진이 진실로 죄 있거니와 주계를 파하기는 주인이 괴로이 권하
 기에 마지못함이고, 선녀로 더불어 언어를 수작하기는 길을 밟을 말미암음
 이니 각별 부정한 말을 한 바가 없고, 선방에 돌아온 후에 일시에 마음을
 잡지 못하나 마침내 스스로 누우쳐 뜻을 바르게 하였으니, 제자가 죄 있거
 든 사부가 달초(撻楚)하실 뿐이지 어이 차마 내치려 하시나이까? 사부 우
 러러 뵈기를 부모같이 하니 성진이 십이 세에 부모를 버리고 스승님을 좇아
 머리를 깎으니 연화도량이 곧 성진의 집이니 나를 어디로 가라 하시나이까?”
 대사가 이르되,
 “네 스스로 가고자 하기에 가라 함이니 네 만일 있고자 하면 뉘 능히 가라
 하리오? 네 또 이르되 어디로 가리요 하니 너의 가고자 하는 곳이 너의 갈
 곳이라.”
 대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황건역사가 어디 있느냐?”
 홀연 공중으로부터 신장(神將)이 내려와 청령하거늘 대사가 분부하되,

“네 죄인을 영거(領去)하여 풍도에 가 교부(交付)하고 오라.”

→성진이 용궁에서 저지른 일을 안 육관대사가 성진을 불러
 풍도(지옥)에 보내려 하고 있다.

[중략 부분 줄거리] 풍도로 끌려 간 성진은 양 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환생하
 고, 함께 환생한 팔 선녀와 차례로 인연을 맺게 되고 높은 벼슬에까지 오른다.
 벼슬에서 물러나 여생을 즐기던 양소유는 두 부인과 여섯 남자를 거느리고 뒷
 동산에 올라갔다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더니, 홀연 석경에 막대 던지는 소리 나거늘 괴이
 히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더니,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더라.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 사람이 대승상께 뵈나이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 왈,

“사부는 어디로부터 오신고?”

호승이 웃어 왈,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잇음 험타는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홀연 깨쳐 능파낭자를 돌아보
 며 왈,

“소유가 전일 토번을 정벌할 제 꿈에 동정 용궁에 가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
 에 남악에 가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가
 그 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다. 옳다. 비록 옳으나 몽중에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십 년을 동처하던
 일을 알지 못하니 뉘 양장원을 총명타 하더뇨?”

승상이 망연하여 가로되,

“소유가 십오륙 세 전은 부모 좌하를 떠나지 않았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연
 하여 직명(職名)이 있었으니, 동으로 연국에 봉사하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밖은 일찍 경사를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로 더불어 십 년을 상종(相從)
 하였으리오?”

호승이 웃어 왈,

“상공이 오히려 춘몽(春夢)을 깨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 왈,

“사부가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리오?”

호승 왈,

“이는 어렵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석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홀연 네 녘 산골로
 부터 구름이 일어나 대 위에 끼이어 지척을 분변치 못하니, 승상이 정신이 아
 득하여 마치 취몽 중에 있는 듯하더니 오래되어서야 소리 질러 가로되,

“사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 서로 희롱하느냐?”

→ 인간 세상이 덧없음을 느낀 양소유(성진)가 육관 대사를 만나
 인간 세상에서 천상계로 회귀한다.

말을 떨구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남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 지라. 정히 경황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으되
 향로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 여덟 날 염주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의
 (威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 성진 행
 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풍도로 가고 인세에 환도하
 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급제 한림학사하고 출장임상하여 공명신퇴하고 두 공
 주와 여섯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 천상계로 돌아온 성진

-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구운몽 추가 문제〉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4~28번

[추가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토번국이 당나라를 침공하니, 양소유가 대원수가 되어 전장에 나간다. 양 원수가 전장에서 잠깐 조는데, 꿈에 동정호(洞庭湖) 용왕의 작은딸 백능파를 만난다. 양 원수가 그녀를 첩으로 삼자, 남해 태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양 원수와 싸운다. 양 원수는 자기 군대를 지휘하여 싸움에서 이긴다.

출연 보니 동남쪽에서 붉은 기운과 안개 자욱이 끼며 용궁 사신 행렬의 깃발이 공중에서 날아오며 사자(使者) 내달아 아뢰되,

“동정호 용왕이 원수의 남해 태자 깨침과 공주 구하심을 듣고 친히 궁전에서 축하하려 한대 스스로 맑은 땅에서 경계를 넘지 못하는 고로 궁궐에서 잔치를 베풀고 삼가 원수를 청하여 옥되시더라도 잠깐 임하시게 하시고 겸하여 공주를 궁중에 돌아오시게 하시더이다.”

원수 왈,

“내 바야흐로 대군을 거느려 적군과 마주하고 있고 동정호가 여기서 만 리 밖이라 비록 가고자 한들 어이 얻으리오.”

사자 왈,

“이미 수레를 갖추어 여덟 용이 끌고 있으니 반나절만 하면 돌아오리이다.”

하더라.

양 원수 용녀와 더불어 함께 수레를 타니 신령한 바람이 수레바퀴에 불어 공중에 오르니 이미 인간 세상에서 몇 천 리를 떠난 줄 알지 못하되 다만 흰 구름이 세계를 덮은 양을 볼러라. 잠깐 사이 동정호에 다다르니 용왕이 맞아 주인과 손님의 예법과 위용이 자못 엄숙하더라.

왕이 수중 종족을 모으고 큰 잔치를 차려 원수가 싸움 이기고 용녀가 집에 돌아옴을 축하할새, 술이 취하매 온갖 음악을 내니 풍류 질탕하여 인간 세상과 다르더라.

원수 보니 앞뜰 좌우에 일천 장사 칼과 창을 들고 북 치고 나오고 여섯 줄의 미녀가 비단옷을 입고 춤추니 웅장하고 화려하여 자못 봄직하더라.

용왕더러 묻되,

“이 춤이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한 배라. 아지 못게라, 이 무슨 곡조니이까.”

용왕 왈,

“이 곡조는 용궁에도 옛날에는 없더니 과인의 맏딸이 경하강(涇河江) 용왕의 아들에게 시집갔다가 옥을 당하매 유의(柳毅)*가 편지로 전하거늘, 전당강(錢塘江)에 사는 아우가 경하강에 싸움해 이기고 여아를 데려오니 궁중 사람이 글을 만들어 전당 파진악(錢塘破陣樂)과 귀주 환궁악(貴主還宮樂)이라 하여 이따금 궁중 잔치에 쓰더니, 이제 원수께서 남해 태자를 이기고 부녀 서로 모임이 전일과 방불할새 이 곡조를 내고 이름을 고쳐 원수 파진악(元帥破陣樂)이라 하나이다.”

원수 크게 기뻐 왕께 사뢰되,

“유 선생이 어디 있나니이까. 가히 서로 볼 수 있으리까.”

용왕 왈,

“유씨는 지금 영주의 신선 벼슬을 맡고 있으니 마음대로 오지 못하리이다.”

술잔이 아홉 번 도니 원수 왈,

“군중(軍中)에 일이 많으니 한가히 머물지 못하리로소이다.”

용녀와 더불어 훗날을 기약하더라.

용왕이 원수를 궐문 밖에 가 보내더니 원수 문득 눈을 들어 보니 한 뿔 높고 빼어나 다섯 봉이 구름 속에 들었거늘 왕더러 묻되,

“이 뿔 이름을 무엇이라 하나니이까. 이 양소유 천하를 두루 다녔으되 오직 화산(華山)과 이 뿔을 못 보았나이다.”

용왕이 답하여 이르기를,

“원수 이 뿔을 모르시리이다. 이 곧 남악(南嶽) 형산(衡山)이니이다.”

원수 왈,

“어이 하면 저 뿔을 보리이까.”

용왕 왈,

“날이 아직 늦지 아녘으니 잠깐 구경하셔도 군영에 돌아갈 수 있으리이다.”

원수 수레에 오르니 금방 뿔 아래 이르렀더라. 원수 막대를 끌고 돌길을 찾아 가니 일천 바위 다투어 빼어나고 일만 물이 겨뤄 흐르는 절경이지만, 볼 겨를이 없는지라, 한탄하여 가로되,

㉠ “어느 날 공적을 이루고 물러나 세상 밖 한가한 사람이 될꼬.”

문득 바람결에 경쇠 소리 들리거늘 절 문이 멀지 않은 줄 알고 좇아 올라가니, 한 절이 있으되 그 규모가 극히 장려하고 노승이 당 위에 앉아 바야흐로 설법하니 눈썹이 길고 눈이 푸르고 골격이 빼어나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 모든 중을 거느리고 당에서 내려와 원수를 맞으며 왈,

“산 속 사람이 귀와 눈이 없어 대원수 오시는 줄 알지 못하여 멀리서 맞지 못했으니 죄를 용서하소서. 원수 이번은 돌아올 때 아니 거니와 이미 왔으니, 불전 위에 올라가 예배하소서.”

원수 분향 예배하고 불전 아래로 내리더니 문득 실족하여 엎어져 놀라 깨달으니 몸은 영중(靈中)의 높은 의자에 기대고 있고 날은 이미 밝았더라.

원수 장졸을 모으고 문 왈,

“너희들 밤에 무슨 꿈이 있더냐.”

㉡ 모두 답 왈,

“꿈에 원수를 모시고 귀신 병졸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장수를 생포하였나이다. 이 필연 오랑캐를 멸할 징조로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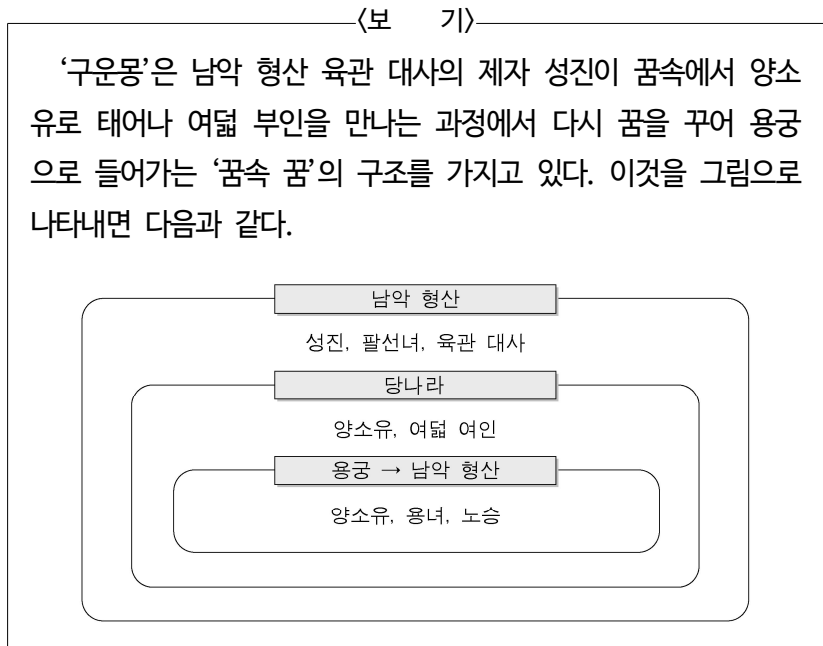
원수 크게 기뻐 자신의 꿈을 이르고 장졸을 거느려 백룡담 위로 가 보니 고기 비늘이 떨어져 가득하고 피 흘러 내가 되었더라. 원수 잔을 가져오라 하여 먼저 못 물을 떠 마시고 또 병든 군병을 먹이니 즉시 낫거늘, 그제야 군병과 전마를 일시에 먹이니 즐겨하는 소리 우레 같더라. 적병이 듣고 크게 두려워 항복코자 하더라.

- 김만중, 「구운몽」 -

* 유의: 중국 당나라 소설 '유의전'의 주인공.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나타나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이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④ 격조 있는 표현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 ⑤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

2.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물이 활동하는 공간이 현실 층위에 한정되어 실감이 나는군.
- ② ‘꿈속 꿈’의 공간이 꿈 이전의 현실과 연결된다는 점이 묘미가 있군.
- ③ 꿈과 ‘꿈속 꿈’을 통하여 모든 현실적 욕망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군.
- ④ ‘꿈속 꿈’의 공간은 양소유와 여덟 여인이 만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군.
- ⑤ 꿈과 ‘꿈속 꿈’의 공간이 닫혀 있어서 안정감 있는 공간 의식을 갖게 하는군.

3. [A]는 ‘유의전’의 이야기를 빌려와 쓴 부분이다. ‘구운몽’과의 대응 구조를 표로 나타낼 때, ㉠, ㉡에 알맞은 것은? [1점]

	유의전	구운몽
구출자	㉠	양소유
적대자	경하강 용왕의 아들	㉡
구출 대상	동정호 용왕의 맏딸	동정호 용왕의 작은딸

- | ㉠ | ㉡ |
|--------------|------------|
| ① 육관 대사 | 남해 태자 |
| ② 남해 태자 | 동정호 용왕의 아우 |
| ③ 남해 태자 | 동정호 용왕 |
| ④ 동정호 용왕 | 남해 태자 |
| ⑤ 동정호 용왕의 아우 | 남해 태자 |

4. ㉠에 담긴 양소유의 심정을 시조로 표현할 때,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귀거래(歸去來) 귀거래 말뿐이요 갈 이 없어
전원이 장무(將蕪)하니 아니 가고 어떨꼬
초당에 청풍명월이 나명들명 기다리나니
- ② 재 너머 성 권능 집에 술 익닷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놀러 타고
아이야 네 권능 계시냐 정 좌수 왔다 하여라
- ③ 강산 좋은 경(景)을 힘센 이 다툼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쏘냐
진실로 금(禁)할 이 없을새 나도 두고 노니노라
- ④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시절이 하 수상(殊常)하니 울동말동 하여라
- ⑤ 선인교 나린 물이 자하동 흘러들어
반 천년(半千年) 왕업(王業)이 물소리뿐이로다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하리오

5.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 ② 갑론을박(甲論乙駁)하며
- ③ 설왕설래(說往說來)하며
- ④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 ⑤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추가 지문 해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줄거리

전라도 남원에 사는 총각 양생(梁生)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의 구석방에서 외로이 지냈다. 배필 없음을 슬퍼하던 중에 부처와 저포놀이를 해 이긴 대가로 아름다운 처녀를 얻었다. 그 처녀는 왜구의 난 중에 부모와 이별하고 정절을 지키며 3년간 궁벽한 곳에 묻혀서 있다가 배필을 구하던 터였다. 둘은 부부관계를 맺고 며칠간 열렬한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양생은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딸의 대상을 치르러 가는 양반집 행차를 만났다. 여기서 양생은 자기와 사랑을 나누는 여자가 3년 전에 죽은 그 집 딸의 혼령임을 알았다. 여자는 양생과 더불어 부모가 베푼 음식을 먹고 나서 저승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며 사라졌다. 양생은 홀로 귀가했다. 어느날 밤에 여자의 말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자신은 타국에 가서 남자로 태어났으니 당신도 불도를 닦아 윤회를 벗어나라고 했다. 양생은 여자를 그리워하며 다시 장가들지 않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며 지냈다.

★ 지문 해설

전라도 남원에 살고 있는 양생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윈 뒤 여태껏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만복사 동쪽 골방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고요한 그 골방 문 앞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이하여 꽃이 활짝 피어 온 뜰 안 가득 백옥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 놓았다. 그는 달 밝은 밤이면 언제나 객회(客懷)를 억누르지 못하여 나무 밑을 거닐곤 했는데, 어느 날 밤 그 꽃다운 정서를 견잡지 못하고 문득 시 두 수를 지어 읊었다.

한 그루 배꽃나무 적료함을 짝하고
가련하다 달 밝은 밤 헛되이 보내나니
젊은이만 홀로 누운 외로운 창가에
어디서 고운 님은 옥통소를 불고 있나

짝 못 지은 비취새 외로이 날아가고
짝 잃은 원앙도 맑은 강에 노니는데
뉘 집에서 바둑 두리란 약속이 있으려나
밤이면 서러운 창에 기대 불꽃점을 쳐 보네.

시를 다 읊고 나자 별안간 공중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진정으로 자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하는데 그 무엇이 어려울 게 있으리오.”

이 소리를 듣고 양생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 이튿날은 마침 삼월 이십사일이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곳 마을의 많은 청춘 남녀들이 오래 만복사를 찾아가 향불을 피우고는 각기 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이날 양생은 저녁에 기도가 끝나자 법당에 들어가서 소매 깊이 간직하고 갔던 저포(檮蒲)를 꺼내어 불전에 던지기 전에 먼저 소원을 빌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저녁엔 제가 부처님과 함께 저포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면 법연(法筵)을 차려서 부처님께 갱아드릴 것이고, 만일 부처님께서 지시면 반드시 제 소원인 어여쁜 아가씨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축원을 마치고는 즉시 저포를 던지자, 과연 그는 소원대로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는 매우 기뻐서 다시금 불전에 꿇어앉아 말씀을 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의 아름다운 인연은 이미 정해졌사오니, 원컨대 자비하신 부처님께서서는 소생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라옵니다.”

하고 그는 불좌 뒤 깊숙한 곳에 앉아서 동정을 살폈다.

→ 모쭙인 양생이 부처와 저포놀이를 하고 이긴 다음 여인을 얻기를 소원하고 있다.

얼마 안 되어 과연 아가씨 하나가 들어오는데, 나이는 한 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고, 새까만 머리에 화장을 곱게 한 얼굴이 마치 채운(彩雲)을 타고 내려온 월궁의 선녀와 같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곱고 압전하였다.

그녀는 백옥 같은 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부어 불을 켜고 향로에다 향을 꽂은 뒤 세 번 절을 하고는 꿇어앉아 슬피 탄식하였다.

“아아, 인생이 박명하다고는 하나 어찌 이와 같을 줄 알았겠는가?”

여인은 품속에서 뭔가 글이 적힌 종이를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 고을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아뢰옵니다.

지난날 변방을 잘 지키지 못해 왜구가 침략하였습니다. 창과 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몇 해나 이어지더니 가옥이 불타고 백성들이 노략질 당하였습니다. 이리저리로 달아나 숨는 사이 친척이며 하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스스로 규방 속에 들어가 끝내 정절을 지켜서 무도한 재앙을 피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를 지킨 일을 옳게 여기셔서 외진 땅 외진 곳의 풀밭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셨으니, 제가 그곳에 머문 지도 이미 삼 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며 헛되이 세월 보냄을 가슴 아파하고,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텅 빈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기구한 제 운명에 한숨짓고, 좋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오색찬란한 난새가 혼자서 추는 춤에 마음 아파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늙은 늑아 없어지고, 여름밤 겨울밤마다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제 처지를 가엾게 여겨 주소서.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기구한 운명일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 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메어 슬피 울었다.

→ 양생의 앞에 여인이 울면서 부처에게 연을 청하고 있는 장면이다.

양생이 좁은 틈 사이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뛰쳐나가 말했다.

“좀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양생은 종이에 쓴 글을 읽어 보더니 기쁨이 얼굴에 가득한 채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셨소?”

그녀는 대답했다.

“저도 역시 사람입니다. 저를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만 좋은 배필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이때 만복사는 이미 퇴락하여 승려들은 한쪽 구석진 골방으로 옮겨가 있었고,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으며, 행랑이 끝난 곳에 좁다란 판자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불러 그곳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별 주저함 없이 따라갔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름없었다.

(중략)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함께 개령동으로 향하였다. 어느 한 곳에 이르니 다복썩이 들을 덮고 참천한 고목 속에 정쇄한 수간 초당이 나타났다. 양생은 아가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침구와 휘장이 잘 정리되어 있고, 밥상을 올리는데 모든 음식이 어젯밤 만복사의 차림과 차이가 없었다. 양생은 껍이나 기쁜 마음으로 이를 동안을 유유히 보냈다.

시녀는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조금도 교활한 면이 없었다. 좌우에 진열되어 있는 그릇들은 깨끗하고 품위가 있어 그는 간혹 의아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은근한 정에 마음이 끌려 다시금 그런 생각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양생에게 말했다.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의 사흘은 인간의 삼 년과 같습니다. 가연을 맺은 지가 잠깐인 듯하오나 오래 되었사오니, 너무 서운하긴 하나 당신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셔서 옛날의 살림을 돌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여보시오. 이별이라니 갑작스레 그게 웬 말이요?”

“오늘 못 다 이룬 소원은 내세에 다시 만나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예절도 인간과 다름이 없사오니 저의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만나보고 떠나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대화가 끝나자 그녀는 시녀를 시켜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초대하였다.

→ 양생은 만복사에서 만난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별하기 전 여인의 친척과 동무들을 보려고 한다.

〈만복사저포기 추가 문제〉

2001학년도 수능 32-36

[추가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兵火)에 타 버리고 없었다. 다시 처가에 가 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귄 뿐이었다. 이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갔다.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춰 주는데 낭하에서 발자각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최씨가 거기 있었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았다.

〈중략〉

이튿날 최씨가 이생과 함께 옛날 살던 개령동을 찾아가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님의 유골을 거두어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씨와 함께 살았다.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했던 하인들도 돌아왔다. 이생은 이후로 인간사를 싫어하여 친척이나 귀한 손님의 길흉사에도 가지 않고 늘 최씨와 함께 시를 주고받으면서 ㉠ 금실 좋게 함께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몇 해가 훌쩍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최씨가 이생에게 이르기를,

“세 번씩이나 가약(佳約)을 맺었으나, 세상일이 서로 어긋나기만 합니다. 아직 실컷 즐기지도 못했는데 슬픈 이별이 문득 닥쳐왔군요.”

하고는 오열하였다. 이생이 깜짝 놀라 물었다.

“어찌하여 이러는 거요?”

최씨가 말했다.

“저승길 가는 운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제(天帝)께서는 첩과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죄도 없었기에, 저를 잠시 머물게 하여 낭군과 근심을 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이승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어 하녀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玉樓春)’ 한 곡을 노래하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도적떼 밀려와서 온 세상이 싸움터인데,
구슬 꽃 흩어지고 원앙도 짝 잃었네.
여기저기 널린 유해(遺骸)는 물어 주는 이 없고
얼룩진 유혼(遊魂)은 하소연할 곳도 없구나.
고당루(高唐樓)에 한번 내려온 무산(巫山) 선녀
깨진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이 참담하도다.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두 세계가 아득히 멀어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

한 마디 부를 때마다 삼킨 눈물이 흘러내려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생도 참담한 심정을 견잡지 못하면서 말했다.

“차라리 부인과 함께 저승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무리히 홀로 남아 목숨을 보전하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하인들이 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 유골이 들판에 널려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 지내고 매장하였겠소? 고인(古人)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禮)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를 부인이 다 한 것

은 천성이 순수하고 효성스러우며 인정이 독실하고 도탑기 때문이니 감격함을 그칠 수 없었으며, 나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부인은 이승에서 좀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에 함께 흙으로 돌아갑시다.”

최씨가 대답했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첩은 이미 귀신의 명부(名簿)에 실려 있으니 오래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에 연연하면 명부(冥府)의 법에 위배되어 죄가 저만 아니라 낭군께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첩의 유골이 모처(某處)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푸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이나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최씨는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지더니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 주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생도 최씨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을 얻어 서너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 절의(節義)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1. 윗글의 주인공 ‘이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영웅적인 삶을 살고자 했다.
- ② 생사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을 했다.
- ③ 최씨와 해로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
- ④ 한시를 짓고 즐길 수 있는 교양을 갖추었다.
- ⑤ 벼슬도 구하지 않고, 세상일에도 관심이 없었다.

2.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사관(生死觀)은?

- ① 사람이 죽더라도 영혼은 사람 곁에 영원히 머물게 된다.
- ② 사람이 죽으면 바로 육신과 영혼으로 분리되어 사라져 버린다.
- ③ 사람은 죽더라도 업보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로 새로 태어나서 살아 간다.
- ④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시 이승에 머물 수도 있지만 끝내는 사라진다.
- ⑤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 행복을 누리거나 지옥에 가 벌을 받으며 지낸다.

3. ㉠의 상황에서 '최씨'가 불렀음직한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 점]

- ① 못난 대로 외로이 앓은 뒤의 몸
 굶주리고 떨면서 사십 년을 살아왔네.
 문노라, 인생이란 진정 얼마이던고.
 가슴 속에 맺힌 설움 언제나 눈물일세. (계생, 「빈 방」)
- ② 하늘은 삼신산 같은 수명을 주시고
 까치는 날아와 백세 영화 알려 주네.
 만 이랑의 좋은 밭이 내 소원 아니거니
 원앙처럼 즐겁게 한평생 보내리라. (송씨, 「새 집」)
- ③ 밤 연기 속에 오동 꽃 떨어지고
 바닷물에는 봄 구름 행하구나.
 꽃다운 풀밭 위의 한 잔 술이여
 서울서 우리 다시 만나세. (이달, 「이예장과 이별하며」)
- ④ 산 위에 꽃 피었고 꽃 아래는 산인데
 한 곡조로 그치려니 눈물이 흐르네.
 낙동강 물은 끝날 날이 없고
 한 머금은 푸른 물결 가서는 오지 않네. (이유원, 「산유화」)
- ⑤ 밤비에 앞 강물이 모래밭에 넘쳐
 만 리에 같은 마음 뚝배가 뚝배.
 생각하면 고향에도 봄은 이미 왔으련만
 부질없이 하늘 끝에 쓸쓸히 앉아 있네.
 (김운초, 「황강 노인을 기다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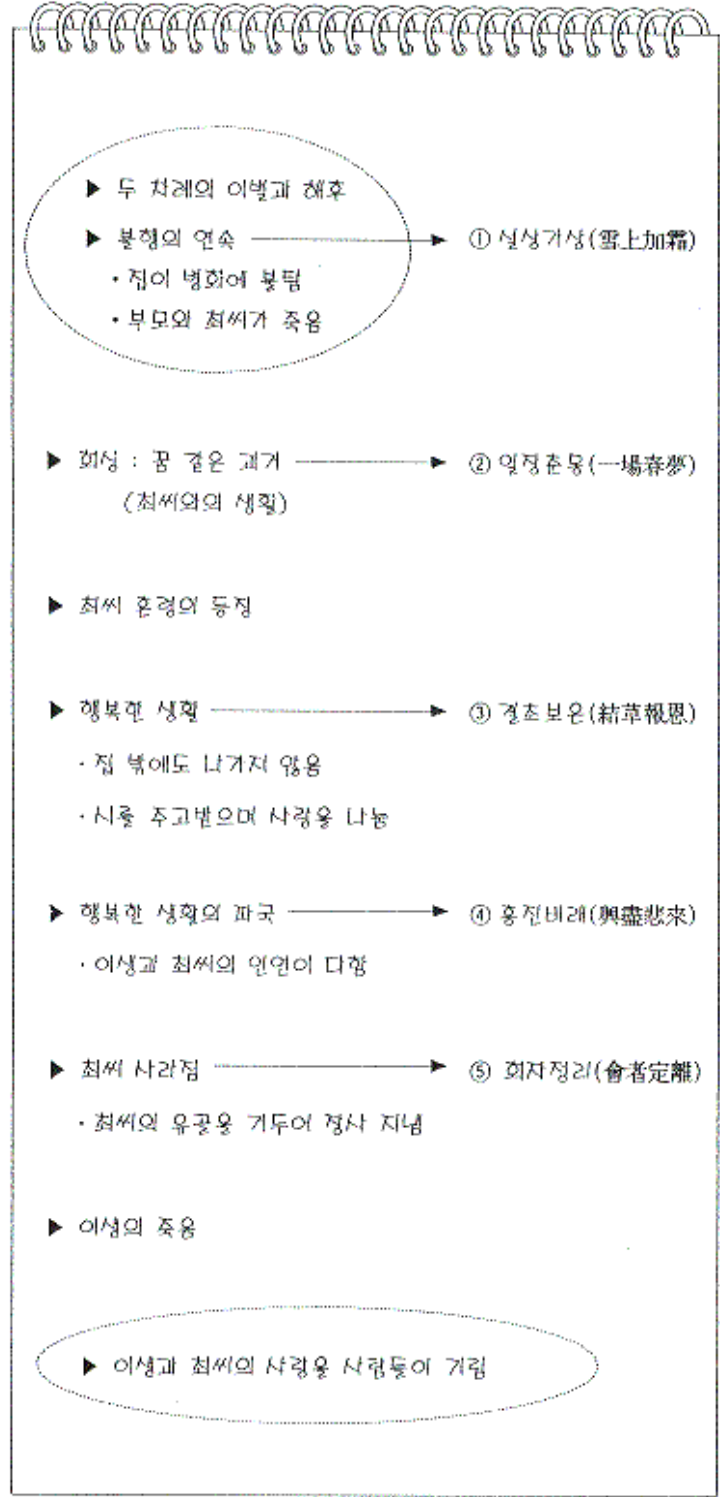
4. ㉡을 <보기>와 같이 바꾸어 쓰기 위해 나는 생각들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생이 슬픔에 겨워 통곡을 했더니 최씨가 다시 살아났다.

- ① 성근 : 이렇게 되면 행복한 결말이 될 것 같아.
- ② 혜숙 : 그래. 최씨가 다시 살아나면 사랑을 이룰 수 있을 테니 참 좋겠어.
- ③ 경연 : 최씨가 살아나는 대목을 이생이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장면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어?
- ④ 기범 : 이번에는 최씨와 함께 오래도록 살아가는 것으로 하자.
- ⑤ 은정 :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그렇게 만들면 누가 믿겠어. 소설은 현실을 그려야 하잖아.

5. 윗글로 알 수 있는 전체 사건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한자 성어와 연결해 보았다. 한자 성어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유자소전 추가 문제, 정답〉

문항 번호	1	2
답	③	⑤

문항 번호	3	4
답	②	①

〈가면의 꿈 추가 문제, 정답〉

문항 번호	1	2	3	4
답	②	③	⑤	⑤

〈구운몽 추가 문제, 정답〉

문항 번호	1	2
답	⑤	②

3	4	5
⑤	①	①

〈만복사저포기 추가 문제, 정답〉

문항 번호	1	2	3
답	①	④	②

문항 번호	4	5
답	⑤	③

★ 추가 문제는 해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PART 2

**미처 실지 못한 이야기들
(사관학교와 경찰대)**

2017학년도 경찰대학 1차 입학시험 25-29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사또 행장을 차리는데 모양 보소. 술 사람을 속이려고 모자 없는 헌 파립(破笠)에 벌이줄 총총 매어 초사(草紗) 갓끈 달아 쓰고 당만 남은 헌 망건에 갓풀관자 ㉠ 노끈 당줄 달아 쓰고 의뭉하게 헌 도복에 무명실 띠를 흉중에 둘러매고 살만 남은 헌 부채에 ㉡ 솔방울 선추(扇錘) 달아 일광을 가리고 내려올 제,

(중략)

“저 농부 말 좀 물어 보면 좋겠구먼.” “무슨 말?” “이 골 춘향이가 본관(本官)에 수청(守廳) 들어 뇌물을 많이 먹고 민정에 작폐한단 말이 옳은지?” 저 농부 열을 내어 “게가 어디 삽나?” “아무 데 살든지.” “아무 데 살든지.’라니. 게는 눈 콩알 귀 콩알이 없나? 지금 춘향이가 수청 아니 든다 하고 형장 맞고 갇혔으니 창가(娼家)에 그런 열녀 세상에 드문지라. 옥결 같은 춘향 몸에 자네 같은 동냥치가 누설(陋說)을 시키다간 빌어먹도 못하고 굶어 뒤어지리. 올라간 이 도령인지 삼도령인지 그놈의 자식은 일거후(-去後) 무소식(無消息) 하니 인사(人事) 그러고는 벼슬은커녕 내 좃도 못 하제.” “어, 그게 무슨 말이고?” “왜, 어찌 됩나?” “되기야 어찌 되련마는 남의 말로 구습(口習)을 너무 고약히 하는고.” “자네가 철모르는 말을 하매 그렇게.” 수작을 파하고 돌아서며 “허허, 망신이로고. 자, 농부네들 일하오.” “예.”

(중략)

“그 안에 뉘 있나?” “뉘시오?” “내로세.” “내라니 뉘신가?” 어사 들어가며 “이 서방일세.” “이 서방이라니. 옳제, 이 풍헌 아들이 서방인가?” “허허, 장모 망령이로세. 나를 몰라, 나를 몰라?” “자네가 뉘기여?” “사위는 백년지객(百年之客)이라 하였으니 어찌 나를 모르는가?” ㉢ 춘향의 모(母) 반겨하여 “애고 애고, 이게 웬일이고. 어디 갔다 인제 와. 풍세(風勢) 대작(大作)터니 바람결에 풍겨 온가? 봉운기봉(峰雲奇峰)터니 구름 속에 싸여 온가? 춘향의 소식 듣고 살리려고 와 계신가? 어서 어서 들어가세.”

손을 잡고 들어가서 촛불 앞에 앉혀 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걸인 중에도 상걸인 되었구나. 춘향의 모 기가 막혀 “이게 웬일이요?” “양반이 그릇되매 형언할 수 없네. 그때 올라가서 벼슬길 끊어지고 탕진가산(蕩盡家産)하여 부친께서는 학장(學長)질 가시고 모친은 친가로 가시고 다 각기 갈리어서 나는 춘향에게 내려와서 돈천이나 얻어 갈까 하였더니, 와서 보니 양가(兩家) 이력 말이 아닐세.” 춘향의 모 이 말 듣고 기가 막혀 “무정한 이 사람아, 일차 이별 후로 소식이 없었으니 그런 인사가 어디 있으며, 후기(後期)인지 바랐더니 이리 잘 되었소. 쏘아 논 살이 되고 엇질러진 물이 되어 수원수구(誰怨誰咎)를 할까마는 내 딸 춘향 어쩔남나.”

- 작자 미상, 춘향전

(나)

관찰사는 평양감사 직을 마치고 대사헌이 되어 조정으로 복귀하였고, 생도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이 자란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감히 말이나 얼굴엔 드러낼 수 없었다. 이럴 즈음, 감시과(監試科)를 본다는 방이 나붙었다. 아버지의 명대로 생은 친구 두셋과 함께 산사로 들어가 과업(科業)을 준비하게 되었다.

산사에 있던 어느 날 밤, 친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다. 생도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홀로 일어나 뜰 앞을 서성였다. 때는 한겨울이고 눈 내린 밤 달빛이 눈부시게 환한 데에다 깊은 산속의 고요한 밤이라 온갖 소리마저 잦아들었다. 생은 달을 바라보며 자란을 그리워하다가 구슬픈 마음이 절로 일었다. 얼굴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을 누를 수 없어 정신을 잃고 미쳐 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밤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다.

급기야 그는 서 있던 뜰에서 곧장 평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 털모자에 명주옷을 입고 가족신을 신고서 걸어서 길을 떠난 것이다. 그러니 채 10여 리도 못 가서 발이 부어 더는 걸어갈 수가 없었다. 어느 촌가에 들어가 가족신을 ㉤ 짚신으로 바꿔 신고, 쓰고 있던 털모자를 버리고 옆이 찢어져 다 해진 ㉥ 패랭이를 얻어 썼다. 여행길에 구걸도 하였으나 굶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관에 기숙했지만 밤새도록 추위에 얼기 일쑤였다.

부귀한 집안의 자제로 기름진 밥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자란 터라 문밖으로는 몇 걸음도 나가 본 적이 없던 그였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천 리 길을 걸어서 가다 보니 비틀거리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기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어 옷은 찢어질 대로 찢어져 너털너털해지고 얼굴은 검고 수척해진 게 거의 귀신의 몰골이었다. 험한 고비를 넘기며 조금씩 걸어서 한 달 남짓 만에 비로소 평양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곧장 자란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자란은 보이지 않고 ㉦ 그 어미 혼자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어미는 생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생은 앞으로 다가가 직접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전 사또의 아들이라네. 자네 딸을 잊지 못해 이렇게 천 리 길을 걸어서 왔다네. 딸은 어딜 갔길래 안 보이는가?” 어미는 그의 말을 듣고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우리 딸은 새로 오신 사또의 자제한테 사랑을 입어 밤낮없이 산정(山亭)에서 함께 머물고 있지 뭍니까. 그 도련님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잠시도 허락지 않아 우리 애가 집에 오지 못한 지도 이미 몇 달이 됩니다. 도련님께서 이렇게 먼 길을 오셨으나 만날 길이 막연하니 참 딱하게도 되었구려.” 그러면서 먼 곳만 바라볼 뿐 영접할 의사가 없었다.

- 임방, 천예록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 ② 시간의 순차적 진행에 따라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 ③ 재치 있는 표현 속에서 해학적 분위기가 느껴진다.
- ④ 남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⑤ 서술자가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2. (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장이 리듬감 있게 구성되어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 ③ 인물의 말 속에 비속어가 사용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 ⑤ 극적인 반전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 ② ㉠과 ㉡는 모두 인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과 ㉡는 모두 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
- ④ ㉠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낮고, ㉡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높다.
- ⑤ ㉠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고, ㉡는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4. 글의 문맥상 ㉠~㉣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지문 해설>

★ 춘향전 줄거리

숙종대왕 즉위 초에 되기 월매는 자식이 없어 매일 기도를 하여 성참판과의 사이에서 딸 춘향을 낳는다. 춘향은 어릴 때부터 용모가 아름답고 시와 그림에 능하여 온 고을이 춘향을 칭송했다. 어느 봄날 사또 자제 이도령이 광한루에 봄 구경 갔다가 그 곳에서 그녀를 타는 춘향을 보고 춘향의 아름다운 반해 방자를 시켜 춘향을 데려오게 하지만, 춘향은 그에 응하지 않는다. 이도령은 그 날로 춘향의 집으로 찾아가 월매에게 춘향과 백년가약을 맺겠다고 맹세하고 춘향과 부부의 연을 맺는다. 그러던 어느 날, 부친의 남원부사 임기가 끝나자 이도령과 춘향은 이별을 맞이한다. 이도령은 춘향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서울로 떠난다. 새로 부임한 변학도는 만사 제쳐두고 이름난 기생들을 불러 모아 연일 잔치를 벌이는데, 그 와중에 예쁘기로 소문난 춘향도 불러가게 된다. 변학도는 춘향이 기생의 딸이므로 춘향 또한 기생이나 마찬가지로 수청을 들라고 한다, 그러나 춘향은 자신은 일부종사해야하니 수청을 들 수 없다고 거절하여 옥에 갇히게 되고, 화가 난 변학도가 춘향을 자신의 생일날 처벌하겠다고 한다. 한편 한양으로 간 이도령은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로 다시 남원에 내려오게 된다. 이도령은 변학도의 횡포와 춘향이 겪은 일들을 모두 듣게 되지만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거령방이 행세를 하며 낯 간 사람처럼 행동한다. 춘향은 그런 그를 원망하기는커녕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며 월매에게 그를 극진히 대접해라주라고 부탁하기까지 한다. 드디어 변학도의 생일잔치 날, 남루한 행색을 한 이도령이 들어와 자신이 시를 한 수 지을 테니 술 한 잔만 대접해 달라고 하며 변학도가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꼬집는 시를 시어낸다. 변학도는 그 시를 보고도 이도령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춘향을 불러내라 명령하고, 곧 암행어사 이도령이 출두한다. 변학도와 그 무리들은 포박당하고 춘향은 어사인 이도령을 알아보게 되고, 둘은 기쁘게 재회하게 된다. 춘향은 굳은 절개로 인해 칭송받고 이도령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

★ 임방, 천예록 중 옥소선 줄거리

기생인 자란(옥소선)은 어릴 적부터 평안도 관찰사의 아들인 도령의 시중을 들다가 장성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관찰사의 임기가 끝나 도령이 서울로 떠나게 되자 자란은 몹시 슬퍼하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는 의미를 몰랐던 도령은 의연한 태도를 보이며 떠난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자란을 그리워하게 된 도령은 감시(監試),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초시와 복시가 있었음) 준비를 포기하고, 자란을 찾아 평양으로 온다. 도령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던 자란은 자신을 찾아온 도령과 함께 도망하여 시골에 은거한다. 자란이 헌신적으로 내조해 글공부에 매진한 도령은 마침내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자초지종을 알게 된 임금의 명령으로 도령은 자란을 정실부인으로 삼게 된다. 그 후 도령은 재상의 반열에 오르고 자란과 백년해로를 한다.

★ 춘향전 해설

어사도 행장을 차리는데 모양 보소. 술 사람을 속이려고 모자 없는 헌 파립(破笠)에 벌이줄 총총 매어 초사(草紗) 갓끈 달아 쓰고 당만 남은 헌 망건에 갓풀관자 노끈 당줄 달아 쓰고 의뭉하게 헌 도복에 무명실 띠를 흉중에 둘러매고 살만 남은 헌 부채에 솔방울 선추(扇錘) 달아 일광을 가리고 내려올 제,

→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변장하는 모습

(중략)

“저 농부 말 좀 물어 보면 좋겠구먼.” “무슨 말?” “이 골 춘향이 본관(本官)에 수청(守廳) 들어 뇌물을 많이 먹고 민정에 작폐한단 말이 웬지?” 저 농부 열을 내어 “게가 어디 삽나?” “아무 데 살든지.” “아무 데 살든지.”라니. 게는 눈 콩알 귀 콩알이 없나? 지금 춘향이 수청 아니 든다 하고 형장 맞고 갇혔으니 창가(娼家)에 그런 열녀 세상에 드문지라. 옥결 같은 춘향 몸이 자네 같은 동냥치가 누설(陋說)을 시키다간 빌어먹도 못하고 굶어 뒤어지리. 올라간 이 도령인지 삼도령인지 그놈의 자식은

일거후(一去後) 무소식(無消息) 하니 인사(人事) 그러고는 벼슬은커녕 내 좃도 못 하제.” “어, 그게 무슨 말이고?” “왜, 어찌 됩나?” “되기야 어찌 되련마는 남의 말로 구습(口習)을 너무 고약히 하는고.” “자네가 철모르는 말을 하매 그렇게.” 수작을 파하고 돌아서며 “허허, 망신이로고. 자, 농부네들 알하오.” “예.”

→ 암행어사와 어느 농부와의 대화: 춘향이의 소식 (중략)

“그 안에 뉘 있나?” “뉘시오?” “내로세.” “내라니 뉘신가?” 어사 들어가며 “이 서방일세.” “이 서방이라니. 율제, 이 풍헌 아들 이 서방인가?” “허허, 장모 망령이로세. 나를 몰라, 나를 몰라?” “자네가 뉘기여?” “사위는 백년지객(百年之客)이라 하였으니 어찌 나를 모르는가?” 춘향의 모(母) 반겨하여 “애고 애고, 이게 웬일이고. 어디 갔다 인제 와. 풍세(風勢) 대작(大作)터니 바람결에 풍겨 온가? 봉운기봉(峰雲奇峰)터니 구름 속에 싸여 온가? 춘향의 소식 듣고 살리려고 와 계신가? 어서 어서 들어가세.”

손을 잡고 들어가서 촛불 앞에 앉혀 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걸인 중에도 상결인 되었구나. 춘향의 모 기가 막혀 “이게 웬일이요?” “양반이 그릇되매 형언할 수 없네. 그때 올라가서 벼슬길 끊어지고 탕진가산(蕩盡家産)하여 부친께서는 학장(學長)질 가시고 모친은 친가로 가시고 다 각기 갈리어서 나는 춘향에게 내려와서 돈천이나 얻어 갈까 하였더니, 와서 보니 양가(兩家) 이력 말이 아닐세.” 춘향의 모 이 말 듣고 기가 막혀 “무정한 이 사람아, 일차 이별 후로 소식이 없었으니 그런 인사가 어디 있으며, 후기(後期)인지 바랐더니 이리 잘 되었소. 쏘아 논 살이 되고 옆질러진 물이 되어

수원수구(誰怨誰咎)를 할까마는 내 딸 춘향 어쩔남나.”

→ 암행어사와 춘향 모와의 만남: 자신의 처지를 가릴 수 밖에 없는 어사와 그것을 모른 채 속상만 한 춘향 모

★ 천예록 해설

관찰사는 평양감사 직을 마치고 대사헌이 되어 조정으로 복귀하였고, 생도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이 자란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감히 말이나 얼굴엔 드러낼 수 없었다. 이럴 즈음, 감시과(監試科)를 본다는 방이 나붙었다. 아버지의 명대로 생은 친구 두셋과 함께 산사로 들어가 과업(科業)을 준비하게 되었다.

산사에 있던 어느 날 밤, 친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생도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홀로 일어나 뜰 앞을 서성였다. 때는 한겨울이고 눈 내린 밤 달빛이 눈부시게 환한 데에다 깊은 산속의 고요한 밤이라 온갖 소리마저 잦아들었다. 생은 달을 바라보며 자란을 그리워하다가 구슬픈 마음이 절로 일었다. 얼굴 한번 뵈으면 하는 마음을 누를 수 없어 정신을 잃고 미쳐 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밤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다.

→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온 생은 감시과를 보기 위해 산사로 갔으나 자란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급기야 그는 서 있던 뜰에서 곧장 평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털모자에 명주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서 걸어서 길을 떠난 것이다. 그러니 채 10여 리도 못 가서 발이 부어 더는 걸어갈 수가 없었다. 어느 촌가에 들어가 가죽신을 짚신으로 바꿔 신고, 쓰고 있던 털모자를 버리고 옆이 찢어져 다해진 패랭이를 얻어 썼다. 여행길에 구걸도 하였으나 굶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관에 기숙했지만 밤새도록 추위에 얼기 일쑤였다.

부귀한 집안의 자제로 기름진 밥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자란 터라 문밖으로는 몇 걸음도 나가 본 적이 없던 그였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천 리 길을 걸어서 가다 보니 비틀거리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기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어 옷은 찢어질 대로 찢어져 너털너털해지고 얼굴은 검고 수척해진 게 거의 귀신의 몰골이었다. 험한 고비를 넘기며 조금씩 걸어서 한 달 남짓 만에 비로소 평양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

→ 생은 자란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부귀를 버리고 평양으로 간다.

곧장 자란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자란은 보이지 않고 그 어미 혼자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어미는 생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생은 앞으로 다가가 직접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전 사또의 아들이라네. 자네 딸을 잊지 못해 이렇게 천 리 길을 걸어서 왔네. 딸은 어딜 갔길래 안 보이는가?” 어미는 그의 말을 듣고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우리 딸은 새로 오신 사또의 자제한테 사랑을 입어 밤낮없이 산정(山亭)에서 함께 머물고 있지 뭐니까. 그

도련님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잠시도 허락지 않아 우리 애가 집에 오지 못한 지도 이미 몇 달이 됩니다. 도련님께서 이렇게 먼 길을 오셨으나 만날 길이 막연하니 참 딱하게도 되었구려.” 그러면서 먼 곳만 바라볼 뿐 영접할 의사가 없었다.

→ 자란을 향해 평양으로 왔지만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자란

<문제 해설>

	1	2
	③	⑤

	3	4
	③	③

혹시 틀리셨다면 밑의 해설을 보는 대신 자신이 틀린 이유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 ② 시간의 순차적 진행에 따라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 ③ 재치 있는 표현 속에서 해학적 분위기가 느껴진다.
- ④ 남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⑤ 서술자가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① 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평가원에 비해 표면적 근거가 덜 드러나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춘향전에서는 암행어사 행장을 하고 농부와 만나는 데 이때 농부가 '수작을 파하고 돌아서며'라는 말을 통해 대화의 장소가 밭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춘향 모와 이야기 하면서 촛불이 등장한 것을 보아 암행어사는 춘향이의 집으로 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은 참입니다.

천예록에서는 표면적으로 평양으로 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② 시간의 순차적 진행에 따라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가): 주어진 지문을 이어보자면 어사또가 걸인 행색으로 행장하고 춘향의 고을로 내려가는 도중 농부와 춘향이의 상황에 대해 묻고 그 다음 춘향이의 집으로 들어가 춘향 모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경찰대학에서는 춘향전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는 전제로 출제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의 근거가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보다 많이 미약한 감이 있지만 순차적 구성으로 이해해야 이야기가 들어맞기 때문에 옳다 할 수 있습니다.

(나): 감시과를 보기 위해 떠나서 산사에 있다 자란을 보기 위해 한달동안 고생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다 평양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끝납니다. 서사 진행에 따라 시간이 흐르는 구성이므로 순차적 구성이 맞습니다.

따라서 2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③ 재치 있는 표현 속에서 해학적 분위기가 느껴진다.

(가): '이 도령인지 삼 도령인지'를 통해 재치 있는(기발한, 참신한) 표현 속에서 해학적(익살스러운, 재밌는)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 그런 표현은 지문 내에서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④ 남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춘향전과 천예록 모두 암행어사와 춘향의 사랑(사위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음), 자란과 생의 사랑으로 서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⑤ 서술자가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춘향전에서는 암행어사의 행장을 갖추는 모습, 암행어사와 농부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서술자가 암행어사에 초점을 맞추어 서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할 수 있고, 천예록에서는 생의 행적에 따라 서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주인공인지는 지문 내에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인물이 주변인물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체적인 소설 줄거리 상으로 봤을 때 두 인물은 각 소설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경찰대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의 근거를 찾기 보다는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식의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의해서 풀면 5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2. (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장이 리듬감 있게 구성되어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 ③ 인물의 말 속에 비속어가 사용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 ⑤ 극적인 반전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다.

① 문장이 리듬감 있게 구성되어 있다.

어사또/행장을/차리는데/모양 보소/술 사람을/속이려고/모자 없는/헌 파립(破笠)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일정한 단어 수 마다 끊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리듬감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번은 정답이 아니다.

② 인물의 외양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옥결 같은 춘향 몸
이 부분을 통해서 춘향(인물)의 몸(외양)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2번도 정답이 아니다.

③ 인물의 말 속에 비속어가 사용되고 있다.

지금 춘향이가 수청 아니 든다 하고 형장 맞고 갇혔으니 창가(娼家)에 그런 열녀 세상에 드문지라. 옥결 같은 춘향 몸에 자네 같은 동냥치가 누설(陋說)을 시키다간 빌어먹도 못하고 굶어 뒤어지리. 올라간 이 도령인지 삼도령인지 그놈의 자식은 일거후(一去後) 무소식(無消息) 하니 인사(人事) 그러고는 벼슬은커녕 내 좃도 못 하제.

농부의 말에 '놈', '좃도 못하제'라는 말을 통해서 비속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춘향의 모 이 말 듣고 기가 막혀 “무정한 이 사람아, 일차 이별 후로 소식이 없었으니 그런 인사가 어디 있으며, 후기(後期)인지 바랐더니 이리 잘 되었소. 쏘아 논 살이 되고 옆질러진 물이 되어 수원수구(誰怨誰咎)를 할까마는 내 딸 춘향 어쩔남나.”

수원수구라는 대목이 중요한데 수원수구는 남을 원망하거나 꾸짖을 필요가 없다, 즉 자신의 탓이다라는 말이다. 여기서 '옆질러진 물이 되어 수원수구를 할까마는 내 딸 춘향을 어쩔남나.'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을 탓하고 춘향을 불쌍히 여기는 춘향 모의 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4번도 정답이 아니다.

⑤ 극적인 반전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다.

분명 상식으로 풀었으면 틀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는 암행어사가 출두해서 변 사또가 호되게 당하는 장면이 없기 때문이다. 발문을 잘 읽고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지문에 맞추어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문제의 정답 5번을 바로 골랐을 것이다.

3.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 ② ㉠와 ㉡는 모두 인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와 ㉡는 모두 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
- ④ ㉠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낮고, ㉡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높다.
- ⑤ ㉠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고, ㉡는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① ㉠와 ㉡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A: 춘향 모는 처음 암행어사를 봤을 때 만나서 매우 기뻐했지만 암행어사가 자신의 근황을 밝힐 때 암행어사를 '무정한 사람'이라 칭하면서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 자란 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지 행색인 생에게 기뻐하는 기색이 없기 대신 무심하게 딸이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말을 단습니다. 따라서 자란 모에게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② ㉠와 ㉡는 모두 인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 지문 내에 춘향이 암행어사와 갈등을 일으켰다는 말이 없으므로 애초에 춘향과 암행어사 사이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춘향 모가 춘향과 암행어사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암행어사가 갈등을 일으킬만한 다른 인물은 없으므로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B: 이 역시 자란과 생 사이의 갈등이 없습니다. 또한 자란 모는 갈등을 중재하기 보다는 생을 무시하고 딸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만 합니다, 따라서 자란 모 역시 둘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지 않습니다.

③ ㉠와 ㉡는 모두 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

A: 암행어사가 사위(딸의 남편)인 것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에게 근황을 묻고 있다.(예고예고 이게 웬일이고 어디 갔다 인제 와. ~ 어서어서 들어가세.) 따라서 춘향 모는 딸과 관계를 두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 자란 모는 생의 정체를 알고 마지막에 '도련님께서 이렇게 먼 길을 오셨으나 만날 길이 막연하니 참 딱하게도 되었구려.'라는 말을 남기면서 자란 모가 자신의 딸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답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생이 자신의 딸의 과거 연인이기에 '딱하게도 되었구려'라는 말을 붙여준 것이다. 따라서 자란 모도 딸과 관계를 두고 생과 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④ ㉠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낮고, ㉡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높다.

A: 지문을 보면

애고 애고, 이게 웬일이고. 어디 갔다 인제 와. 풍세(風勢)

대작(大作)터니 바람결에 풍겨 온가? 봉운기봉(峰雲奇峰)터니 구름 속에 싸여 온가? 춘향의 소식 듣고 살리려고 와 계신가? 어서 어서 들어가세

지문을 통해서 춘향 모는 암행어사에게 큰 기대(풍세가 대작, 봉운기봉)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 이 역시 지문을 보면

“나는 전 사또의 아들이라네. 자네 딸을 잊지 못해 이렇게 천 리 길을 걸어서 왔다네. 딸은 어딜 갔길래 안 보이는가?” 어미는 그의 말을 듣고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우리 딸은 새로 오신 사또의 자제한테 사랑을 입어 밤낮없이 산정(山亭)에서 함께 머물고 있지 뭍니까. 그 도련님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잠시도 허락지 않아 우리 애가 집에 오지 못한 지도 이미 몇 달이 됩니다. 도련님께서 이렇게 먼 길을 오셨으나 만날 길이 막연하니 참 딱하게도 되었구려.”

만약 생에게 기대가 있었다면 '기뻐하는 기색'이 없이 영감하지도 않고 내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란 모는 생에게 큰 기대는 없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⑤ ㉠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고, ㉡는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A: 지문을 보면

무정한 이 사람아, 일차 이별 후로 소식이 없었으니 그런 인사가 어디 있으며, 후기(後期)인지 바랐더니 이리 잘 되었소. 쏘아 논 살이 되고 옆질러진 물이 되어 수원수구(誰怨誰咎)를 할까마는 내 딸 춘향 어쩔남나

수원수구를 통해 자신의 이 운명이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 만약 자신의 상황을 회피했으면 생에게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아 버리고 대화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란 모는 최소한 생에게 자신의 딸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자란 모는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4. 글의 문맥상 ㉠~㉡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춘향전: 노곤 당줄과 술방울 선추를 매단 채 춘향의 모를 보는 순간 춘향의 모는 암행어사를 보고 '거지 행색'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노곤 당줄과 술방울 선추는 부의 상징이기보다는 가난과 궁핍한 복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예록: 털모자를 쓰고 명주옷을 입고 가족신을 신고서 떠난 생은 결국 짚신으로 바꿔 신고 패랭이를 털모자를 버리고 패랭이를 얻어 쓴 결과 거지 꼴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명주옷, 털모자, 가족신은 부의 상징이고 짚신, 패랭이, 낡은 옷은 궁핍한 복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털모자를 제외한 모두 궁핍한 복장이라 생각할 수 있으므로 답은 번입니다.

2017학년도 사관학교 1차 입교시험 28-30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판소리는 청각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공연 예술이면서 시각적 요소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예술이다. 판소리의 주요 시각적 요소는 창자의 신체와 창자가 입는 의상, 그리고 소도구로 사용하는 부채가 전부이다. 판소리에서 활용하는 시각적 전략의 요체는 역설적이게도 시각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창자가 여러 등장인물로 자유롭게 변환하는 것을 제약하는 공연 예술의 관습을 최소화함으로써 그 표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판소리 창자의 의상과 소도구가 복잡하게 짜여 있다면 창자는 오히려 시각적 요소들의 제약으로 인해 작중 상황에 맞는 다채로운 변신을 기할 수 없을 것이다.

창자가 여러 등장인물로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는 것은 판소리 특유의 연행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창자는 등장인물의 모습을 완전히 무대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청관중’이 그 등장인물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특징만을 드러내는데, 이를 판소리에서는 ㉠‘부분적 현전’이라고 한다. 한편 청관중은 창자의 부분적 현전을 매개로 하여 그 등장인물의 완전한 모습을 나름대로 마음속에 환기하게 되는데, 이를 ㉡‘매개적 현전’이라 한다. 또한 판소리에서는 한 사람의 창자가 작품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을 하나씩 구현해 나가게 되는데, 이를 ㉢‘통합적 현전’이라 한다.

그렇다면 판소리에서 창자와 고수, 청관중은 어떤 방식으로 공연을 만들어 가게 될까? 판소리의 공연 구조는 아래와 같다.

이처럼 판소리 공연은 동시적 결합 단위 ①과 ②가 계기적으로 결합되며 진행되는데, 진행 과정에서 ‘공소*’를 활용하게 된다. 고수는 추임새로 공소를 메우면서 청관중의 추임새를 유도하며 공연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동시적 결합 단위 ①에서 창자는 ‘창’을 하는 사이사이에 고수와 청관중이 공연 내부에 참여할 수 있는 공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에 따라 고수와 청관중이 추임새를 통해 자기의 주관을 공연 내부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킴으로써 작중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동화의 원리’가 작용한다. 반면 ②에서는 창자가 ‘아니리’를 하면서 공소를 소극적으로 만들게 된다. 따라서 청관중은 자기의 주관을 공연 내부에 개입시키기 어려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중 상황을 관망하게 되는 ‘이화의 원리’가 작용한다.

판소리 공연은 공연자인 창자가 고수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연 내부에 필요한 공소를 적절하게 만들고, 청관중이 그 공소를 추임새로서 적절히 채워 나가면서 완성된다. 공소의 적절한 배치와 활용을 통해 진행되는 판소리 공연은 ‘동화-이화’의 반복을 통해 판소리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경계를 느슨하게 하여 소리판을 하나의 공동체적 공간으로 만들게 된다. 이는 판소리가 생동적인 시간적 구조, 곧 과정적 생성 구조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공소: 공연 예술에서 공연자가 청관중의 공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품 내부에 시간적으로 휴지를 두거나 부분적으로 공간을 비워 두는 부분.

[추가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공소, 부분적 현전인 부분을 찾고 (가)와 (나)가 무엇에 가까운지 선지 내에서 고르시오, (2007학년도 수능 41-45)

<보 기>

(가) [/] ()

:) 가 ,

가 (:),

(:)

(:)

() [/] () (曹操) 가

(程昱)

“ ? ”

“ ”

“ ”

“ , ? ”

가

“ ”

“ ” 큰 장

끼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소그려.”

“ ? ”

“ ”

“ 가 , (:)

- 「 가 」 -

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창> - ㉠

어사또를 정신없이 물끄러미 보더니마는 웃음도 반 울음도 반으로, 마오 마오, 그리 마오. (고수: 열씨구) 서울 양반 독협이다. 기처 불식이란 말이 (고수: 허이) 사기에난 있지마는, 내게조차 이러시오? (고수: 어이 좋다) 어제 저녁 모시었을 제, 날 보고만 말씀허었으면 마음 놓고 잠을 자지. (고수 : 열씨구) 지나간 밤 (고수 : 허이) 오날까지 간장 탄 걸 헤아리면 살어 있기가 뜻밖이오. (청관중: 잘한다)

<아니리> - ㉡

그 때야 춘향 모난 어사또가 사원 줄은 알았으나, 간밤에 사위를 너무 괘시헌 가남이 있어, 염치 없어 못 들어가고 삼문 밖에서 눈치만 보다, 춘향 입에서 우리 어머니 소리가 나니, 옳지 인자 되얏다 허고 떠들고 들오난디, (고수: 열씨구)

<창> - ㉢

어디 가야 여기 있다. 도사령아, 큰문 잡아라. (고수: 허이) 어사 장모님 행차허신다. 열녀 춘향을 누가 낳나. 말도 마소, 내가 낳네. 장비야, 배 다칠라! 열녀 춘향 난 배로다. (고수 : 열씨구) 네 이놈들, 오늘도 삼문만이 이미 드셀 테냐. (청관중: 잘한다)

- 판소리, 「춘향가」중 -

- ① ㉠은 ㉡에 비해 청관중이 작중 상황에 쉽게 몰입될 여지가 있겠군.
- ② ㉡는 ㉢에 비해 고수와 청관중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제한되겠군.
- ③ ㉡는 ㉠, ㉢에 비해 시각적 요소로서 의상과 소도구가 더 다양하겠군.
- ④ ㉠~㉢의 과정을 통해 창자와 청관중이 소통하며 정서적 일체감이 형성되겠군.
- ⑤ ㉠, ㉡, ㉢는 '동화 → 이화 → 동화'의 원리가 계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연행되겠군.

2. 윗글의 '판소리(A)'와 <보기>의 '풍물굿(B)'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풍물굿'은 팽과리, 징, 북과 같은 풍물 악기들을 사용하여 풍물 장단을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공연 예술이다. 풍물굿에는 특정한 등장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하나의 가면을 쓰고 공연에 참여하는 '잡색'이 있다. 잡색은 다른 공연자와 청관중 사이를 오가면서 공연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관중의 욕구를 자극한다. 그러면 한 걸음 떨어져 공연을 보던 청관중은 잡색의 유도로 신명을 느끼며 공연판 안으로 들어가 춤을 추다가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공연자화된다. 이처럼 풍물 굿은 공연자와 청관중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연을 완성해 나가는 연행 방식을 보여 준다.

- ① (A)에서는 창자가, (B)에서는 잡색이 다채로운 인물로 변신하며 연기하는군.
- ② (A)에서는 시간적 공소가, (B)에서는 공간적 공소가 활용되며 연행되겠군.
- ③ (A)와 (B)에서는 청각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를 함께 사용하며 공연하는군.
- ④ (A)와 (B)에서는 청관중의 호응도에 따라 공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군.
- ⑤ (A)와 (B)에서는 청관중과 공연자가 공연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군.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청관중이, ㉡은 창자가 주체가 된다.
- ② ㉠은 ㉡과 달리 청관중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 ③ ㉡은 ㉠이 나타나는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 ④ ㉡은 ㉠과 ㉢이 절충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 ⑤ ㉢은 ㉠과 ㉡의 구현 순서가 역전되면서 진행된다.

<단어 찾기>

★ 밑에 나와 있는 단어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체
연행
현전
추임새
관망
관습
아니리
발림

<문제 해설>

	1	2	3
	㉓	㉑	㉔

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㉑~㉔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창> - ㉑

어사또를 정신없이 물끄러미 보더니마는 웃음도 반 울음도 반으로, 마오 마오, 그리 마오. (고수: 얼씨구) 서울 양반 독협이다. 기처 불식이란 말이 (고수: 허이) 사기에난 있지마는, 내게조차 이러시오? (고수: 어이 좋다) 어제 저녁 모시었을 제, 날 보고만 말씀허였으면 마음 놓고 잠을 자지. (고수 : 얼씨구) 지나간 밤 (고수 : 허이) 오날까지 간장 탄 걸 헤아리면 살어 있기가 뜻밖이오. (청관중: 잘한다)

<아니리> - ㉒

그 때야 춘향 모난 어사또가 사원 줄은 알았으나, 간밤에 사위를 너무 괘시헌 가남이 있어, 염치 없어 못 들어가고 삼문 밖에서 눈치만 보다, 춘향 입에서 우리 어머니 소리가 나니, 옳지 인자 되얏다 허고 떠들고 들오난디, (고수: 얼씨구)

<창> - ㉔

어디 가야 여기 있다. 도사령아, 큰문 잡아라. (고수: 허이) 어사 장모님 행차허신다. 열녀 춘향을 누가 낳나. 말도 마소, 내가 낳네. 장비아, 배 다칠라! 열녀 춘향 난 배로다. (고수 : 얼씨구) 네 이놈들, 오늘도 삼문만이 이미 드셀 테냐. (청관중: 잘한다)

- 판소리, 「춘향가」중 -

- ① ㉑는 ㉒에 비해 청관중이 작중 상황에 쉽게 몰입될 여지가 있겠군.
- ② ㉒는 ㉔에 비해 고수와 청관중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제한되겠군.
- ③ ㉒는 ㉑, ㉔에 비해 시각적 요소로서 의상과 소도구가 더 다양하겠군.
- ④ ㉑~㉔의 과정을 통해 창자와 청관중이 소통하며 정서적 일체감이 형성되겠군.
- ⑤ ㉑, ㉒, ㉔는 ‘동화 → 이화 → 동화’의 원리가 계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연행되겠군.

동시적 결합 단위 ①에서 창자는 ‘창’을 하는 사이사이에 고수와 청관중이 공연 내부에 참여할 수 있는 공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에 따라 고수와 청관중이 추임새를 통해 자기의 주관을 공연 내부에 적극적으로 개입 시킴으로써 작중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동화의 원리’가 작용한다. 반면 ②에서는 창자가 ‘아니리’를 하면서 공소를 소극적으로 만들게 된다. 따라서 청관중은 자기의 주관을 공연 내부에 개입시키기 어려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중 상황을 관망하게 되는 ‘이화의 원리’가 작용한다.

① ㉑는 ㉒에 비해 청관중이 작중 상황에 쉽게 몰입될 여지가 있겠군.

창에서는 고수와 청관중의 개입이 아니리 보다 쉽다 나와 있고 실제로 고수와 청관중이 아니리 때보다 더 자주 일어나므로 창에서 청관중이 쉽게 몰입될 수 있다. 따라서 1번은 정답이 아니다.

② ㉒는 ㉔에 비해 고수와 청관중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제한되겠군.

아니리는 창에 비해서 외부에서의 참여가 더 작게 나온다고 본문에 나와있고 실제 보기에서도 아니리에서 고수와 청관중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번도 정답이 아니다.

③ ㉒는 ㉑, ㉔에 비해 시각적 요소로서 의상과 소도구가 더 다양하겠군.

본문을 보면

주요 시각적 요소는 창자의 신체와 창자가 입는 의상, 그리고 소도구로 사용하는 부채가 전부이다. 판소리에서 활용하는 시각적 전략의 요체는 역설적 이계도 시각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어느 시점에서든 창자는 시각적 요소로 의상과 소도구밖에 없으므로 아니리를 할 때 창을 할 때보다 소도구가 더 많을 수 없다. 따라서 3번은 정답이다.

④ ㉑~㉔의 과정을 통해 창자와 청관중이 소통하며 정서적 일체감이 형성되겠군.

판소리 공연은 ‘동화-이화’의 반복을 통해 판소리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경계를 느슨하게 하여 소리판을 하나의 공동체적 공간으로 만들게 된다.

이러는 내용을 통해 창과 아니리를 반복하면서 창자와 청관중이 정서적 일체감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4번은 정답이 아니다.

⑤ ㉑, ㉒, ㉔는 ‘동화 → 이화 → 동화’의 원리가 계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연행되겠군.

창은 공소를 많이 뒤서 청중과 고수가 공연 내부에 적극 개입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으므로 ‘동화의 원리’가 작용하고 아니리는 공소를 적게 뒤서 청중이 공연을 관망할 수 있게 한다. 이때는 이화의 원리가 작용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가, 나, 다를 보면 동화 → 이화 → 동화의 원리가 연속해서 작용하므로 5번은 정답이 아니다.

2. 윗글의 '판소리(A)'와 <보기>의 '풍물굿(B)'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풍물굿'은 팽과리, 징, 북과 같은 풍물 악기들을 사용하여 풍물 장단을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공연 예술이다. 풍물굿에는 특정한 등장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하나의 가면을 쓰고 공연에 참여하는 '잡색'이 있다. 잡색은 다른 공연자와 청관중 사이를 오가면서 공연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관중의 욕구를 자극한다. 그러면 한 걸음 떨어져 공연을 보던 청관중은 잡색의 유도로 신명을 느끼며 공연판 안으로 들어가 춤을 추다가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공연자화된다. 이처럼 풍물굿은 공연자와 청관중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연을 완성해 나가는 연행 방식을 보여 준다.

- ① (A)에서는 창자가, (B)에서는 잡색이 다채로운 인물로 변신하며 연기하는군.
- ② (A)에서는 시간적 공소가, (B)에서는 공간적 공소가 활용되며 연행되겠군.
- ③ (A)와 (B)에서는 청각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를 함께 사용하며 공연하는군.
- ④ (A)와 (B)에서는 청관중의 호응도에 따라 공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군.
- ⑤ (A)와 (B)에서는 청관중과 공연자가 공연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군.

① (A)에서는 창자가, (B)에서는 잡색이 다채로운 인물로 변신하며 연기하는군.
본문 내용 중

그것은 창자가 여러 등장인물로 자유롭게 변환하는 것을 제약하는 공연 예술의 관습을 최소화함으로써 그 표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얻을 정보는 판소리는 공연 예술의 관습을 최소화 했다는 것과 창자가 여러 등장인물로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소리에서는 창자가 다채로운 인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풍물굿에서 잡색은 특정한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최소한의 도구인 가면만을 쓰면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다채로운 인물로 변하면서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오답입니다.

② (A)에서는 시간적 공소가, (B)에서는 공간적 공소가 활용되며 연행되겠군.
판소리에는 창자가 중간에 휴지를 두어 고수와 청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그러나 풍물굿에서는 청관중을 공연 유도를 시키기 위해 청관중 사이를 오가면서 신명을 일으킨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풍물굿에서는 공간적 공소가 활용되므로 2번은 정답이 아니다.

③ (A)와 (B)에서는 청각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를 함께 사용하며 공연하는군.
판소리에서는 시각적 요소를 줄였다고 했지 없었다고는 하지 않았다(웃과 부채). 따라서 판소리에서는 소리(창)와 웃과 부채로 청각적/시각적 요소를 모두 공연에서 사용한다.
풍물굿에서는 가면(시각적 요소)을 쓰고 팽과리, 징, 북(청각적 요소)을 사용하면서 공연을 한다 했으므로 이 역시 시/청각적 요소 모두 사용한다. 따라서 3번은 정답이 아니다.

④ (A)와 (B)에서는 청관중의 호응도에 따라 공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군.
판소리와 풍물굿 모두 (청)관중이 공연에 개입해서 공연 자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관중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공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⑤ (A)와 (B)에서는 청관중과 공연자가 공연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군.
보기와 본문에서

이처럼 풍물굿은 공연자와 청관중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연을 완성해 나가는 연행 방식을 보여 준다.
판소리 공연은 '동화-이화'의 반복을 통해 판소리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경계를 느슨하게 하여 소리판을 하나의 공동체적 공간으로 만들게 된다.

이 내용을 통해서 풍물굿과 판소리 모두 관중이 어우러져 공연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간다고 했으므로 5번은 정답이 아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청관중이, ㉡은 창자가 주체가 된다.
- ② ㉠은 ㉡과 달리 청관중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 ③ ㉡은 ㉠이 나타나는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 ④ ㉡은 ㉠과 ㉣이 절충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 ⑤ ㉣은 ㉠과 ㉡의 구현 순서가 역전되면서 진행된다.

- ㉠: 부분적 현전
- ㉡: 매개적 현전
- ㉣: 통합적 현전

① ㉠과 ㉣은 청관중이, ㉡은 창자가 주체가 된다.
 부분적 현전은 창자가 등장인물의 최소의 특징을 드러내어 청관중이 알아채게 하는 것으로 창자가 주체가 된다.
 매개적 현전은 청관중이 창자를 보고 등장인물의 완전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으로 청관중이 주체가 된다.
 통합적 현전은 창자가 모든 등장인물을 구현해내는 것으로 주체는 창자다.

따라서 바르게 고치면 '㉠과 ㉣은 창자가, ㉡은 청관중이 주체가 된다.'이다.

② ㉠은 ㉡과 달리 청관중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부분적 현전에서 창자가 최소의 특징을 드러냈을 때 청관중이 알아챌 때도 상상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매개적 현전에서 청관중이 창자를 보고 등장인물을 완전히 구현할 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둘 다 상상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2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③ ㉡은 ㉠이 나타나는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창자가 부분적으로 등장인물의 특징을 보여준 후 청관중이 이를 보고 등장인물의 완전한 구현을 이뤄낼 수 있으므로 매개적 현전은 부분적 현전이 나타나는 상황을 전제로 생겨납니다. 따라서 3번은 정답입니다.

④ ㉡은 ㉠과 ㉣이 절충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매개적 현전은 부분적 현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부분적 현전과 통합적 현전이 절충되는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부분적 현전과 통합적 현전이 절충된다면 모든 등장인물을 한 창자가 동시에 다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매개적 현전이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⑤ ㉣은 ㉠과 ㉡의 구현 순서가 역전되면서 진행된다.
 아니죠. 우선 '창자'가 등장인물을 모두 구현하는 과정에는 청관중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자가 등장인물을 모두 구현하는 것과 청관중이 창자를 보고 모든 등장인물을 인식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명제입니다. 따라서 5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 만약 통합적 현전에 청관중이 모든 등장인물을 환기하는 과정이 있다 해도 그 과정은 부분적 현전과 매개적 현전 순으로 이어지지 절대로 역전되어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추가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공소, 부분적 현전인 부분을 찾고 (가)와 (나)가 무엇에 가까운지 선지 내에서 고르시오, (2007학년도 수능 41-45)

<보 기>

(가) [] (:) 가 , (:) , (:) () [] () (曹操) 가 (程昱) , “ ? ” “ , ” “ , ” “ , ? ” 가 “ ? ” “ 가 , (:) - , 「 가 」 -

공소: (고수: 어이쿠야), (고수: 어허), (청관중: 신명난다) (고수: 어허)
 부분적 현전: (머리를 움츠리면서)

2017학년도 사관학교 1차 입교시험 39-41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심작은돌 노파는 폐결핵과 장질부사로 입원하였지만,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폐허나 다름없는 제3병동에 수용된다. 노파의 간호를 위해 그의 딸인 강남옥 처녀는 노파의 침대에서 숙식을 같이 하다가 결국 장질부사에 걸린다. 의사 김중우는 강남옥을 무료로 진찰해 주고, 매트도 구해 줘 모친과 함께 치료를 받게 한다. 하지만 수납계 직원이 이를 눈치챈다.

내과 과장은 그녀가 누운 매트에 대해서는 수납계 직원처럼 그리 수상쩍게, 또 못마땅하게 여기진 않았다. 오히려 그런 사정이 있으려니 하는 눈짓으로 싱긋이 웃고만 돌아갔다. 내과 과장이 떠나자 이내 서무과 급사가 들어오더니 수간호원을 보고서, “수혈 끝나는 대로 서무과장이 좀 오시래요.” “왜?” 수간호원은 급사의 표정을 훑었다. “글썩요…….” 급사는 그저 그럴 내기다. ‘헛, 매트 얘길 테지! 그 여우 같은 늑정이가…….’ 일러바친 게로군 싶었다.

멀리서 하늘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극성스럽게 쏟아지는 폭우가, 허물어져 가는 제3병동의 유리창을 마구 때렸다. 험령한 창문 틈바구니마다 빗물이 새어들어 유리를 타내리고, 강남옥 처녀가 누워있는 쪽 천장 구석도 차츰 젖어들기 시작했다. 그러한 빗속에서도 불도저는 내쳐 부르릉거렸다. 운전사는 필시 물에 빠진 생쥐 꼬이 뒀을 테지. 명령, 아니 인간의 강하고 약함이 한꺼번에 실감되는 그러한 경황이랄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그 둔탁스런 불도저 소리도 환자들에게는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한결같이 희멀건 눈들이, 쏟아지는 빗발을 심심치 않게 내다보는가 하면, 그 속에서 부르릉대는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 도 내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요컨대 그들은 병원생활이 무척 괴롭고 지루했던 것이다. 가뜩이나 전염병 환자만이 늘어져 있는 허물어져 가는 3등 병실에서, 그저 치료비 독촉장이나 받을 뿐, 누구 하나 꽃이라도 들고 깎듯이 찾아 주는 사람도 없는 3등 인간인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때로는 비도 반가웠고 불도저 소리도 거슬리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따금 우르릉 하는 먼 천둥 소리에, 솟제 살아 있는 하늘의 방향이라도 잡아 보려는 듯, 눈을 번쩍 뜨는 환자도 있었다. 말하자면 누에가 잠을 잘 때 고개만은 치켜들고 있듯 빗소리에 한결 조용해진 병실 안 사람들도 신경은 내쳐 날카롭기만 했던 것이다.

다만, 넓적한 마스크를 한 간호원이 가끔 와서 보고 가는 오롱댁 심작은돌 노파만이, 또닥또닥 떨어져 들어가는 피를 받으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강남옥 처녀는 시종일관 모든 것을 살살이 눈여겨보았다. 매트 위에 누웠을 때도, 천장을 향해 있는 그녀의 뒷발 선 커다란 눈은 마치 병실 안 전체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꼭 다문 입을 헤일 수 없는 말들을!

……더구나 수납계의 고참 직원이 불쑥 나타났을 때의 일, 서무과 급사로부터 출두 연락을 받았을 때의 수간호원의 심상치 않은 표정…… 이러한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덩달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추측이며 생각들이 한때 어머니에 대한 걱정까지도 밀어 버리고 그녀의 망막과 머릿속을 점령했다. 천장에 맺혔던 물방울이 툭 하고 머리맡에 떨어질 때 그런 의식에서 일단 단절된다. 그러나 다시 덮친다. 다시 덮치다간, 결국 이것도 저것도 갈피를 잡지 못한다. 머리가 몽롱해 온다. 머리가 몽롱해 오며 의식마저 허물어진다. 결국 그녀의 의식은 고열로 인해서 녹아진 것이다.

강남옥 처녀가 다시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녀의 몸뚱이가 김중우 의사와 간호원들에 의해서 그녀의 어머니 곁으로 옮겨졌을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그저 보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김중우 의사가 그녀가 누워 있던 빈 매트를 발로써 냅다 밀어 버리며 괜히 죄도 없는 간호생을 보고 투덜대고 있었다.

“인부 시켜, 수납계 그 늑다리한테 딱 갖다 보이게 치워 두래! 알았어?”

아직 경험이 없는, 실습 간호생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빨리 그러라니까!”

김중우 씨의 말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진다. 수간호원이 간호생더러 뭐라고 타일러 보낸다. 강남옥 처녀는

팔꿈치에 따끔한 것을 느꼈다. 링거 방울이 눈물처럼 눈에 아른거린다. 김중우 의사는 그것을 조절하면서 또 씨부렸다.

“저희들은 턱도 아닌 것들을 데리고 와서 관비 치료니 뭐니 하면서…….”

“그러기 말예요.”

수간호원이 맞장구를 치듯 받는다.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원장님도 원장님이지 뭐예요.”

좁은 병상 위에서, 한쪽은 피 주사를, 한쪽은 링거—다행히 몸피가 여윈 3등 인간이라 좋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차스런 고통서니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이튿날 저녁 오롱댁 심작은돌 노파의 몸뚱이는 드디어 병상에서 내려졌다. 뺏어진 것이다.

(중략)

인부들이 돌아간 뒤, 강남옥 처녀는 다시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남의 사정도 헤아려야만 하는 병실에서와는 달리 본격적인 울음이 시작된 것이다. 그저 훌쩍거리고 어깨를 추스릴 뿐이 아니다. 소리를 내가며 울었다.

휘휘한 방 안을, 천장에 덩그러니 달린 바알간 전등 하나가 지켜보고 있었다. 바깥은 여전히 빗소리다. 불도저 소리도 여전히 멀리서 부르릉거렸다. 허물어져가는 제3병동의 한 귀퉁이라도 무너뜨리려는지 우지끈하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 [B] 다행히 시체안치소의 유리창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럴때 누가 문틈으로라도 엿보았다더라면, 죽어 있는 시체보다 을씨년스럽게 울어 대는 처녀의 모습에 더욱 질렸을 것이다. 이젠 간호원들도 그녀의 열을 재러 오지 않았다. 의사들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울음을 방해할 사람은 없었다.

이윽고, 널빤지로 된 문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까 그 인부 두 사람이 되나타났다. 약간 주기가 있는 듯한 얼굴들로서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다.

“처녀가 혼자서 울고 있는 걸 보니…….”

위로차 온 모양이다.

“그양 울 수도 없고, 암매 향불도 미처 못 구했지 싶어서…….”

그들은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 있는 강남옥 처녀를 떼놓듯이 하고 향을 피워 주었다. 한 사람은 축 늘어진 포켓 속에서 조그만 초까지 꺼내어 촛불까지 밝혀 주었다. 손등에는 빗물들이 번질거리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혼감한 정까지 겹쳤음인지 강남옥 처녀의 울음소리는 더욱 구슬퍼졌다.

나이 늙수그레한 인부 한 사람은 병원 구내에 살았던 모양으로 아침 일찍 부인을 시켜 죽까지 한 그릇 치면하게 갖다 주었다. 우격에 못 이겨 그걸 받아 마시는 강남옥 처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했다. 죽 위에 사뭇 떨어졌다. 3등 인간도 끝내 외롭지는 않았던 것이다.

- 김정환, 「제3병동」 -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병치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노출하고 있다.
- ③ 사건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하여 보여 주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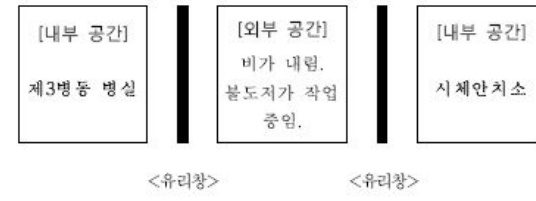
이 작품은 인간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 보는 '도구적 가치관'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본질적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병원'은 근대화가 양산한 불구화된 심성의 소유자들에 의해 도구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내려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휴머니즘을 통해 인간소외와 물신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수납계 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 화를 내는 원장을 비난하고 있는 '수간호원'은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군.
- ② 어머니를 여인 '강남옥 처녀'에게 향불과 죽을 제공하는 '인부들'은 본질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적 인물이군.
- ③ 3등 병실에 있는 '3등 인간'은 인간을 등급화시키는 물신주의에 의해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군.
- ④ 병원이 환자의 생명보다 이윤 추구에 매몰된 공간으로 변질된 현실은 도구적 가치관이 팽배한 근대화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군.
- ⑤ '강남옥 처녀'를 진정으로 걱정하며 도움을 주는 '김종우 의사'는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과는 달리 본질적 가치를 지키려는 인물이군.

3.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의 [A]와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보기 1 >

선생님: 이 작품에서 '유리창'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단절시키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품의 [A]와 [B]에서는 유리창을 경계로 안과 밖의 공간이 아래와 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리창'과 유리창을 경계로 한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모습을 등장인물의 상황, 태도, 심리와 연계하여 감상해 봅시다.

< 보기 2 >

- 가희: [A]의 '불도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내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는 병원 생활에 지쳐 외부 공간의 상황에 관심을 보이는 내부 공간 인물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 나희: [B]의 '불도지 소리도 여전히 멀리서 부르릉거렸다.'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내부 공간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다희: [A]와 달리 [B]에서 '유리창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외부 상황이 내부 공간의 인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라희: [A]의 '극성스럽게 쏟아지는 폭우'와 [B]의 '바깥은 여전히 빗소리다.'는 외부 공간을 지향하지만 두려움에 떨며 망설이고 있는 내부 공간 인물들의 심리와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① 가희, 나희 ② 가희, 다희 ③ 나희, 다희 ④ 나희, 라희 ⑤ 다희, 라희

<지문 해설>

★ 김정환, 제 3병동 줄거리

이 작품은 중증 폐결핵에다 장질부사로 입원한 노파 오롱댁과 그의 딸 강남옥이라는 처녀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돈을 소유하지 못해 소외 계층이 된 이들이 입원한 제3 병동은 '3등 인간'들이 있는 곳으로, 건물부터 1,2동(棟)과는 매우 다르다. 천장에서 무시로 물이 새어 똑똑 떨어지고 어둡침침한 골마루에 삐걱삐걱 소리 나는 시커먼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다. 오롱댁 노파의 간호를 위해 그의 딸인 강남옥 처녀는 노파의 침대에서 숙식을 같이 한다. 그러다가 강남옥도 장질부사에 걸리는데 그녀에게 입원비도 치료비도 없다. 의사 김중우는 딱한 처지에 있는 강남옥을 진찰해 주고 약도 지어 주고, 입원 수속할 형편이 못 되는 걸 알면서도 병원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강남옥의 매트리스도 구해다 준다. 같은 병실에 있던 한 아주머니는 딸이 가망 없음을 알고 퇴원하려고 짐을 챙기자 그 딸은 삶의 애착 때문에 하염없이 운다. 이들이 떠나는 애처로운 모습에서 삶의 희의를 느꼈음인지 강남옥은 한동안 멍하니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오롱댁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고 간신히 얻은 매트리스 한 장마저 병원측에 발각되어 빼앗긴다. 그녀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것은 밀린 치료비 청구서뿐이었다. 마침내 오롱댁은 죽고 병원측에서는 입원비를 다 내지 않았다 하여 노파의 시신을 사할 동안이나 시체 안치소에 방치해 놓는다. 강남옥은 누구의 동정도 받기 싫은 심정에서 김중우 의사나 간호원들의 친절도 거북해 하며 결국 자신을 3등 인생이라고 자학한다. 그래도 시체실의 인부들이 산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죽을 갖다 줄 때는 3등 인간도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그녀의 아버지 강 노인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지만, 모든 걸 체념한 듯 돌 같이 굳은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 지문 해설

[앞부분의 줄거리] 심작은돌 노파는 폐결핵과 장질부사로 입원하였지만,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폐허나 다름없는 제3병동에 수용된다. 노파의 간호를 위해 그의 딸인 강남옥 처녀는 노파의 침대에서 숙식을 같이 하다가 결국 장질부사에 걸린다. 의사 김중우는 강남옥을 무료로 진찰해 주고, 매트도 구해 줘 모친과 함께 치료를 받게 한다. 하지만 수납계 직원이 이를 눈치챈다.

내과 과장은 그녀가 누운 매트에 대해서는 수납계 직원처럼 그리 수상쩍게, 또 못마땅하게 여기진 않았다. 오히려 그런 사정이 있으려니 하는 눈짓으로 싱긋이 웃고만 돌아갔다. 내과 과장이 떠나자 이내 서무과 급사가 들어오더니 수간호원을 보고서,

“수혈 끝나는 대로 서무과장이 좀 오시래요.”

“왜?”

수간호원은 급사의 표정을 훑었다.

“글쎄요…….”

급사는 그저 그럴 내기다.

‘헛, 매트 애길 테지! 그 여우 같은 늑정이가…….’

일러바친 게로군 싶었다.

→ 강남옥이 매트에 누워서 진료를 받고 있고 이를 서무과 직원이 눈치를 챘다.

멀리서 하늘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극성스럽게 쏟아지는 폭우가, 허물어져 가는 제3병동의 유리창을 마구 때렸다. 혈렁한 창문 틈바구니마다 빗물이 새어들어 유리를 타내리고, 강남옥 처녀가 누워있는 쪽 천장 구석도 차츰 젖어들기 시작했다. 그러한 빗속에서도 불도저는 내쳐 부르릉거렸다. 운전사는 필시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됐을 테지. 명령, 아니 인간의 강하고 약함이 한꺼번에 실감되는 그러한 경황이랄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그 둔탁스런 불도저 소리도 환자들에게는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한결같이 희멀건 눈들이, 쏟아지는 빗발을 심심치 않게 내다보는가 하면, 그 속에서 부르릉대는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내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요컨대 그들은 병원생활이 무척 괴롭고 지루했던 것이다. 가뜩이나 전염병 환자만이 늘여져 있는 허물어져 가는 3등 병실에서, 그저 치료비 독촉장이나

받을 뿐, 누구 하나 꽃이라도 들고 깎듯이 찾아 주는 사람도 없는 3등 인간인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때로는 비도 반가웠고 불도저 소리도 거슬리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따금 우르릉 하는 먼 천둥 소리에, 솟제 살아 있는 하늘의 방향이라도 잡아 보려는 듯, 눈을 번쩍 뜨는 환자도 있었다. 말하자면 누에가 잠을 잘 때 고개만은 치켜들고 있듯 빗소리에 한결 조용해진 병실 안 사람들도 신경은 내쳐 날카롭기만 했던 것이다.

다만, 넓적한 마스크를 한 간호원이 가끔 와서 보고 가는 오롱댁 심작은돌 노파만이, 또닥또닥 떨어져 들어가는 피를 받으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인간들의 정취가 없는 제 3병동의 현황

강남옥 처녀는 시종일관 모든 것을 샅샅이 눈여겨보았다. 매트 위에 누웠을 때도, 천장을 향해 있는 그녀의 뒷발 선 커다란 눈은 마치 병실 안 전체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꼭 다문 입은 헤일 수 없는 말들!

……더구나 수납계의 고참 직원이 불쑥 나타났을 때의 일, 서무과 급사로부터 출두 연락을 받았을 때의 수간호원의 심상치 않은 표정…… 이러한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덩달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추측이며 생각들이 한때 어머니에 대한 걱정까지도 밀어 버리고 그녀의 망막과 머릿속을 점령했다. 천장에 맺혔던 물방울이 툭 하고 머리맡에 떨어질 때 그런 의식에서 일단 단절된다. 그러나 다시 덮친다. 다시 덮치다간, 결국 이것도 저것도 갈피를 잡지 못한다. 머리가 몽롱해 온다. 머리가 몽롱해 오며 의식마저 허물어진다. 결국 그녀의 의식은 고열로 인해서 녹아진 것이다.

강남옥 처녀가 다시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녀의 몸뚱이가 김중우 의사와 간호원들에 의해서 그녀의 어머니 곁으로 옮겨졌을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소리에 눈이 번쩍 띄었다.

“그저 보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김중우 의사가 그녀가 누워 있던 빈 매트를 발로써 냅다 밀어 버리며 괜히 죄도 없는 간호생을 보고 투덜대고 있었다.

“인부 시켜, 수납계 그 늑다리한테 딱 갖다 보이게 치워 두래! 알았어?”

아직 경험이 없는, 실습 간호생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빨리 그러라니까!”

김중우 씨의 말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진다. 수간호원이 간호생더러 뭐라고 타일러 보낸다. 강남옥 처녀는

팔꿈치에 따끔한 것을 느꼈다. 링거 방울이 눈물처럼 눈에 아른거린다.

김중우 의사는 그것을 조절하면서 또 씨부렸다.

“저희들은 턱도 아닌 것들을 데리고 와서 관비 치료니 뭐니 하면서…….”

“그러기 말예요.”

수간호원이 맞장구를 치듯 받는다.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원장님도 원장님이지 뭐예요.”

좁은 병상 위에서, 한쪽은 피 주사를, 한쪽은 링거—다행히 몸피가 여윈 3등 인간이라 좋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차스런 교락서니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이튿날 저녁 오롱댁 심작은돌 노파의 몸뚱이는 드디어 병상에서 내려졌다. 뺏어진 것이다.

→ 서무과에 들킨 것을 걱정하다가 고열로 쓰러진 강남옥과 그녀를 치료해주는 김중우 그리고 결국 돌아가시 강남옥의 어머니 (중략)

인부들이 돌아간 뒤, 강남옥 처녀는 다시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남의 사정도 헤아려야만 하는 병실에서와는 달리 본격적인 울음이 시작된 것이다. 그저 훌쩍거리고 어깨를 추스릴 뿐이 아니다. 소리를 내가며 울었다.

휘휘한 방 안을, 천장에 덩그러니 달린 바알간 전등 하나가 지켜보고 있었다. 바깥은 여전히 빗소리다. 불도저 소리도 여전히 멀리서 부르릉거렸다. 허물어져가는 제3병동의 한 귀퉁이라도 무너뜨리려는지 우지끈하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 다행히 시체안치소의 유리창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럴때 누가 문틈으로라도 엿보았더라면, 죽어 있는 시체보다 을씨년스럽게 울어 대는 처녀의 모습에 더욱 질렸을 것이다. 이젠 간호원들도 그녀의 열을 재러 오지 않았다. 의사들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울음을 방해할 사람은 없었다.

이윽고, 널빤지로 된 문짝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까 그 인부 두 사람이 되나타났다. 약간 주기가 있는 듯한 얼굴들로서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다.

“처녀가 혼자서 울고 있는 걸 보니…….”

위로차 온 모양이다.

“그양 울 수도 없고, 암매 향불도 미처 못 구했지 싶어서…….”

그들은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 있는 강남옥 처녀를 떼놓듯이 하고 향을 피워 주었다. 한 사람은 축 늘어진 포켓 속에서 조그만 초까지 꺼내어 촛불까지 밝혀 주었다. 손등에는 빗물들이 번질거리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흥감한 정까지 겹쳤음인지 강남옥 처녀의 울음소리는 더욱 구슬퍼졌다.

나이 늙수그레한 인부 한 사람은 병원 구내에 살았던 모양으로 아침 일찍 부인을 시켜 죽까지 한 그릇 치면하게 갖다 주었다. 우격에 못 이겨 그걸 받아 마시는 강남옥 처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했다. 죽 위에 사뭇 떨어졌다. 3등 인간도 끝내 외롭지는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에 슬픔을 못 이겨 우는 강남옥과 그녀를 위로해주는 제 3병동의 인부들

- 김정환, 「제3병동」-

<문제 해설>

	1	2	3
	②	①	②

혹시 틀리셨다면 밑의 해설을 보는 대신 해설을 보지 마시고 자신이 틀린 이유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병치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노출하고 있다.
 - ③ 사건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하여 보여 주고 있다.
- ①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병치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두 사건이 병치되어 있다는 것은 주로 시트콤(EX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별개의 두 사건을 보여줄 때 쓰는 말입니다. 소설에서는 병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사건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문에서는 두 사건(강남옥이 매트에 누워서 진료를 받는 장면, 어머니가 죽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이는 시간차에 의해서 등장하는 것이지 병치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②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노출하고 있다.

지문을 보면

그러한 빗속에서도 불도저는 내쳐 부르릉거렸다. 운전사는 필시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됐을 테지. 명령, 아니 인간의 강하고 약함이 한꺼번에 실감되는 그러한 경황이랄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그 둔탁스런 불도저 소리도 환자들에게는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한결같이 희멀건 눈들이, 쏟아지는 빗발을 심심치 않게 내다보는가 하면, 그 속에서 부르릉대는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 도 내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비가 세계 내려치고 있는 장면에서 서술자는 트랙터 운전자가 '필시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됐을 테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는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 즉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볼 수 있으므로 2번은 정답입니다.

③ 사건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사건의 역전적 구성은 시간이 순차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 시간이 거꾸로 진행되는 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소설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역전적 구성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는 부분도 없으므로 3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④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소설에서 다른 인물이 해주는 이야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쓴 소설을 읽을 때 그 내용이 소설에 나오면 이를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소설에서는 그런 형식이 나오는 부분이 없으므로 4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⑤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하여 보여 주고 있다.

특정 인물의 시선(입장)을 통해서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해서 보여주는 장면은 없습니다. 다만 강남옥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서술한 부분은 있습니다.(강남옥 처녀는 시종일관 모든 것을 살살이 살펴보았다. ~ 녹아진 것이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인간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 보는 ‘도구적 가치관’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본질적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병원’은 근대화가 양산한 불구화된 심성의 소유자들에 의해 도구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내려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휴머니즘을 통해 인간소외와 물신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수납계 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 화를 내는 원장을 비난하고 있는 ‘수간호원’은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군.
- ② 어머니를 여윈 ‘강남옥 처녀’에게 향불과 죽을 제공하는 ‘인부들’은 본질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적 인물이군.
- ③ 3등 병실에 있는 ‘3등 인간’은 인간을 등급화시키는 물신주의에 의해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군.
- ④ 병원이 환자의 생명보다 이윤 추구에 매몰된 공간으로 변질된 현실은 도구적 가치관이 팽배한 근대화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군.
- ⑤ ‘강남옥 처녀’를 진정으로 걱정하며 도움을 주는 ‘김종우 의사’는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과는 달리 본질적 가치를 지키려는 인물이군.

① 수납계 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 화를 내는 원장을 비난하고 있는 ‘수간호원’은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군.
지문에서

서무과 급사가 들어오더니 수간호원을 보고서,
“수혈 끝나는 대로 서무과장이 좀 오시래요.”
“왜?”
수간호원은 급사의 표정을 훑었다.
“글썩요…….”
급사는 그저 그럴 내기다.
“헛, 매트 애길 테지! 그 여우 같은 늑정이가…….”
일러바친 게로군 싶었다.

수간호원이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었다면, 서무원 급사에게 ‘여우 같은 늑정이가...’라는 말을 안 했을 것이다. 지금 수간호사가 언급한 여우 같은 늑정이는 김종우도 아니고 원장도 아닌 서무과장이다. 서무과에서는 강남옥이 무전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눈치 채고 있는 상황에서 수간호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부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뒤에서

김종우 씨의 말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진다. 수간호원이 간호생더러 뭐라고 타일러 보낸다. 강남옥 처녀는 팔꿈치에 따끔한 것을 느꼈다. 링거 방울이 눈물처럼 눈에 아른거린다. 김종우 의사는 그것을 조절하면서 또 씨부렸다.
“저희들은 턱도 아닌 것들을 데리고 와서 관비 치료니 뭐니 하면서…….”
“그러기 말예요.”
수간호원이 맞장구를 치듯 받는다.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원장님도 원장님이지 뭐예요.”

이 부분에서 원장을 비난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장은 김종우 의사와 대립하는 서무과장 편을 들면서 원장 역시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즉 수간호원은 본질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인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② 어머니를 여윈 ‘강남옥 처녀’에게 향불과 죽을 제공하는 ‘인부들’은 본질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적 인물이군.
지문을 보면

이윽고, 널빤지로 된 문짝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까 그 인부 두 사람이 되나타났다. 약간 주기가 있는 듯한 얼굴들로서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다.
“처녀가 혼자서 울고 있는 걸 보니…….”
위로차 온 모양이다.
“그양 올 수도 없고, 암매 향불도 미처 못 구했지 싶어서…….”
그들은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 있는 강남옥 처녀를 때놓듯이 하고 향을 피워 주었다. 한 사람은 축 늘어진 포켓 속에서 조그만 초까지 꺼내어 촛불까지 밝혀 주었다. 손등에는 빗물들이 번질거리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흔감한 정까지 겹쳤음인지 강남옥 처녀의 울음소리는 더욱 구슬퍼졌다.
나이 늙수그레한 인부 한 사람은 병원 구내에 살았던 모양으로 아침 일찍 부인을 시켜 죽까지 한 그릇 치면하게 갖다 주었다. 우격에 못 이겨 그걸 받아 마시는 강남옥 처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했다. 죽 위에 사뭇 떨어졌다. 3등 인간도 끝내 외롭지는 않았던 것이다.

어머님의 죽음에 슬퍼하던 강남옥에게 촛불을 비춰주고 죽을 사준 인부들은 본질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으므로 2번은 정답이 아니다.

③ 3등 병실에 있는 ‘3등 인간’은 인간을 등급화시키는 물신주의에 의해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군.

보기에서 인간을 빈부격차에 따라서 1등, 2등, 3등 등급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것으로 보아 ‘3등 인간’은 인간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밖에 안 보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3등 인간은 물신주의에 의해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3번은 정답이 아니다.

④ 병원이 환자의 생명보다 이윤 추구에 매몰된 공간으로 변질된 현실은 도구적 가치관이 팽배한 근대화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군. 보기에서 ‘병원은 근대화가 양산한 불구화된 심성의 소유자들에 의해 도구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다.’라 했다. 즉 병원은 도구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인간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밖에 안 보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현대의 한 단면을 보여 줄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4번은 정답이 아니다.

⑤ ‘강남옥 처녀’를 진정으로 걱정하며 도움을 주는 ‘김종우 의사’는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과는 달리 본질적 가치를 지키려는 인물이군.

김종우 의사는 강남옥 처녀를 무전으로 치료해주고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서무과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다. 따라서 김종우 의사는 본질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라 할 수 있으므로 5번은 정답이 아니다.

3. <보기 1>을 참고하여 뒷글의 [A]와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보기 1 >

선생님: 이 작품에서 '유리창'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단절시키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품의 [A]와 [B]에서는 유리창을 경계로 안과 밖의 공간이 아래와 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 제3병동 병실		[외부 공간] 비가 내림. 불도저가 작업 중임.		[내부 공간] 시체안치소
<유리창>		<유리창>		

그렇다면 여러분, '유리창'과 유리창을 경계로 한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모습을 등장인물의 상황, 태도, 심리와 연계하여 감상해 봅시다.

< 보기 2 >

- 가희: [A]의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내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는 병원 생활에 지쳐 외부 공간의 상황에 관심을 보이는 내부 공간 인물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 나희: [B]의 '불도저 소리도 여전히 멀리서 부르릉거렸다.'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내부 공간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다희: [A]와 달리 [B]에서 '유리창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외부 상황이 내부 공간의 인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라희: [A]의 '극성스럽게 쏟아지는 폭우'와 [B]의 '바깥은 여전히 빗소리다.'는 외부 공간을 지향하지만 두려움에 떨며 망설이고 있는 내부 공간 인물들의 심리와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① 가희, 나희 ② 가희, 다희 ③ 나희, 다희 ④ 나희, 라희 ⑤ 다희, 라희

가희: '불도저의 소리'는 창문 밖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자들이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는 말을 통해서 내부 공간의 환자들은 '희열건'지친 눈으로 외부 환경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생각 할 수 있으므로 가희의 말은 옳습니다.

나희: 불도저 소리가 여전히 부르릉거리는데도 강남옥은 어떤 태도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그저 울기만 합니다. 만약 나희의 말처럼 이에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인물의 태도가 보여지려면 이 상황에서 저항의 의지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 대신 오히려 무기력하게 울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희의 말은 적절치 않다 할 수 있습니다.

다희: 창문이 흔들리면서 내부의 사람들은 외부의 트랙터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내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B]에서 창문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강남옥도 그저 시체 안치실에서 울기만 했고 의사, 간호사들도 강남옥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창문이 흔들리지 않은 [B]의 경우 외부 상황과 내부 상황의 단절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부 상황이 내부 상황의 인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희의 말은 옳습니다.

라희: [A] [B] 모두 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은 관심만 가지거나([A]) 아예 신경을 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B]) 이를 통해서 내부의 사람들은 외부를 지향하는 마음 대신 외부에 향한 관심이 조금 있을 뿐 외부에 대한 지향이나 지향하지만 두려움에 떨며 망설이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라희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중 가희와 다희의 말만 적절하다 생각할 수 있으므로 답은 2번입니다.

'수능 국어와 교육', 읽다, 그리고 사유하다
국어 강사 심찬우

추가 자료 만드미 : Fiat_Lux (舊 Nit_Didit)